

〈水原陵幸圖屏〉 研究

朴 廷 蕙

(인덕전문대)

〈目 次〉

- I. 머리말
- II. 『園幸乙卯整理儀軌』와 〈水原陵幸圖屏〉
- III. 〈水原陵幸圖屏〉의 내용과 특징
 - 1. 〈奉壽堂進饌圖〉
 - 2. 〈洛南軒養老宴圖〉
 - 3. 〈華城聖廟展拜圖〉
 - 4. 〈洛南軒放榜圖〉
 - 5. 〈西將臺夜操圖〉
 - 6. 〈得中亭御射圖〉
 - 7. 〈還御行列圖〉
 - 8. 〈漢江舟橋還御圖〉
- IV. 〈水原陵幸圖屏〉이 進宴·進饌圖에 미친 영향
- V. 맺음말

I. 머리말

〈水原陵幸圖屏〉은 1795년(正祖19, 乙卯)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 華城에 있는 정조의 부친 思悼世子の 墓所인 顯隆園幸時에 거행된 일련의 행사 중에서 주요 장면을 골라 8幅에 나누어 그린 병풍이다.

정조는 재위기간(1777~1800) 중에 사도세자의 묘소를 水原의 花山으로 遷奉한 뒤 모두 12번에 걸쳐 顯隆園展拜를 치루었다. 그 중에서 乙卯年인 1795년은 정조에게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해로 思悼世子(1735~1762)와 그의 동갑 부인이며 정조의 어머니인 惠慶宮洪氏(1735~1805)의 誕辰一周甲이 되는 해였던 것이다.¹⁾ 이에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현릉원 전배를 마친 뒤 임시처소인 華城行宮에서 탄신 일주갑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進饌禮를 베풀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였다.

이 행사는 정조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었던 만큼 그의 세심한 배려와 계획 아래 사전 준비가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이 乙卯年의 園幸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정리하여 기록한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새로운 銅活字인 整理字로 인쇄하여 출간하였다. 또한 경사스러운

1) 사도세자는 1735년(英祖11) 1월 21일 生이다. 廢庶人으로 죽음을 당했으나 곧 位號가 복귀되고 思悼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1776년 정조 즉위 후 莊獻世子로 追尊되었고 1899년(광무3)에 莊祖로 追尊되었다. 혜경궁 홍씨는 6월 18일 生으로 사도세자 살해 후 惠嬪의 號를 받았다. 1776년 宮號가 惠慶으로 올랐고 1899년 敬懿王后에 추존되었다.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행해졌던 관례에 따라 戶曹의 주관아래 공식적으로 병풍이 제작되어 혜경궁에게 헌상되었음을 『園幸乙卯整理儀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²⁾ 乙卯年의 園幸은 進饌禮에 가장 역점을 둔 행사였으므로³⁾ 당시에는 이 병풍을 ‘進饌圖屏’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남아 있는 〈水原陵幸圖屏〉이라고 생각된다.⁴⁾

8폭으로 이루어진 〈水原陵幸圖屏〉은 현재 國立全州博物館과 昌德宮에 각각 한 짝 소장되어 있으며 湖岩美術館에는 제7폭인 〈還御行列圖〉가, 일본의 東京藝術大學에는 제6폭인 〈得中亭御射圖〉가 각각 한 폭씩 전하고 있다.⁵⁾ 또 최근에 미국의 크리스티(Christie's) 경매에서 거래된 것이 한 짝 알려져 있다.⁶⁾ 이 여러 소장본들은 設彩나 산수처리, 인물의 배치 등 세부적인 곳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1795년의 행사 당시에 제작된 것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 중에서 가장 상태가 나쁜 국립전주박물관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표구가 안된 채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최근 병풍으로 꾸며졌는데 昌德宮本과는 전혀 다른 순서로 8폭이 표구 되어 있다.⁷⁾ 그러나 다행히도 창덕궁본의 그림 배열순서는 『園幸乙卯整理儀軌』 卷首「圖式」의 그림순서와 일치하여 이 창덕궁본의 모습이 原形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는 이 병풍이 ‘進饌圖屏’으로 불리웠던 기록이 뒷받침 하듯이 창덕궁본은 乙卯年 顯隆園幸時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惠慶宮께 올린 進饌禮의 모습을 담은 〈奉壽堂進饌圖〉가 제1폭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 제2폭은 진찬 다음날 양로연을 치루는 先例에 의거하여 水原府의 노인들에게 베푼어진 養老宴의 광경을 담은 〈洛南軒養老宴圖〉이며 제3폭부터 마지막 8폭까지는 행사가 치뤄진 순서에 따라 〈華城聖廟展拜圖〉, 〈洛南軒放榜圖〉, 〈西將臺夜操圖〉, 〈得中亭御射圖〉, 〈還御行列圖〉, 〈漢江舟橋還御圖〉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水原陵幸圖屏〉은 화려한 設彩와 다양한 구도, 그리고 당시 화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金弘道(1745~1816 이후) 畫風과 연관된 우수한 필치 등이 돋보여 오래동안 주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폭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에 있다. 다른 宮中行事圖類의 경우에도 역시 해당되는 이러한 연구의 미흡함은 무엇보다도 관련자료의 영세함과 제작 畫員을 알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2)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五「賞典」과「財用」참조

3)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筵說」 甲寅十二月十三日 “...上曰今年慶禮重在進饌...”

4) 〈水原陵幸圖屏〉이라는 題名은 ‘水原陵幸’이라는 俗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그림의 내용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미 鄭炳模,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板畫史的研究」, 『文化財』, (文化財管理局, 1989. 12), pp. 96~121에서 ‘園幸乙卯八曲屏’이라는 새로운 제명이 제시된 바 있으나 필자는 ‘正祖顯隆園幸乙卯儀軌圖屏’이 보다 그림의 내용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되어 이 題名을 제시하고자 한다.

5) 東京藝術大學本의 圖版은 李東洲, 「檀園三題」, 『日本속의 韓畫』, (瑞文堂, 1974), p.37의 圖版 참조.

6) 『月刊美術』, 1990년 11월호, p.143과 『가나아트』, 1990년 11·12월호 p.157의 圖版 참조.

7) 국립전주박물관본은 〈漢江舟橋還御圖〉, 〈還御行列圖〉, 〈華城聖廟展拜圖〉, 〈洛南軒放榜圖〉, 〈西將臺夜操圖〉, 〈奉壽堂進饌圖〉, 〈洛南軒養老宴圖〉, 〈得中亭御射圖〉의 순으로 꾸며져 있다.

이 〈水原陵幸圖屏〉은 『園幸乙卯整理儀軌』라는 상세한 문헌기록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이 圖屏을 그린 畫員의 이름까지도 알 수 있어서 그 繪畫史의 비중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水原陵幸圖屏〉은 19세기에 유행하는 宮中行事圖의 한 유형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宮中行事圖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儀軌圖와 宮中行事圖만이 가지는 圖像의 인면에 중점을 두어 각 쪽의 행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들이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園幸乙卯整理儀軌』의 기록을 통해 〈水原陵幸圖屏〉의 제작배경과 畫員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립전주박물관 본과 창덕궁본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제작시기도 아울러 추정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水原陵幸圖屏〉이 그 이후의 宮中行事圖 제작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회화사적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園幸乙卯整理儀軌』와 〈水原陵幸圖屏〉

정조가 思悼世子の 탄신일을 전후한 1월 말에서 2월초에 해마다 顯隆園展拜를 행하게 된 것은⁸⁾ 당파의 갈등으로 인해 뒤주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英祖의 蕩平策이 추진되는 속에서도 심각한 국면을 드러냈던 黨爭, 즉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老論의 입장을 따라야만 했던 영조와 그 老論專制를 냉철히 비판한 사도세자와의 갈등 속에서 빚어진 사건이었다.⁹⁾

정조는 즉위한 후 제일 먼저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諡號를 莊獻으로 追贈하고 모친인 惠嬪의 尊號를 惠慶宮으로 加上하였으며¹⁰⁾ 1789년(정조 13)에는 원래 楊州 拜峯山에 있던 사도세자의 墓를 당시 최고의 封標處였던 水原의 花山으로 移葬하였다.¹¹⁾ 이에 따라 水原府의 邑治를 지금의 八達山 아래로 옮긴 다음 水原府를 留守府로 승격시키면서 華城으로 개칭하였다. 여기에 園寢을 가까이 모시고 보호하는 고을로서의 체모를 높인다는 名分으로 華城城郭을 축조하고 정조의 잦은

8) 정조의 현릉원 전배는 사도세자 탄신일에 園所에서 직접 酌獻禮를 올리기 위해 1월 말에서 2월 초에 행하는 春幸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에 근방에 陵幸 길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朴廣成, 「正祖의 顯隆園展拜」, 『畿甸文化研究』 제10집, 仁川教育大學 畿甸文化研究所, 1979, pp.7~28).

9) 조선 후기 정조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의 黨爭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李銀順, 『朝鮮後期 黨爭史研究』, (一潮閣, 1988), pp.67~138 참조. 여기서도 사도세자의 死因을 老論에 의한 희생으로 보고 있다. 그와 다른 견해를 전개한 대표적인 글로는 金用淑, 「思悼世子の 悲劇과 그의 精神分析學的 考察」, 『朝鮮朝女流文學의 研究』, (淑明女子大學 校出版部, 1979), pp.117~207 이 있다.

10) 『正祖實錄』 卷1 即位年丙申 3月 辛卯條(『朝鮮王朝實錄』, 제44권, 국사편찬위원회, p.563, 上左).

11) 『正祖實錄』 卷28 13年己酉 10月 戊辰條(『朝鮮王朝實錄』, 제46권, 국사편찬위원회, p.68, 上右) 여기에 관한 儀軌로 『永祐園遷奉都監儀軌』(奎 13624)가 전한다. 맨 처음 垂恩墓라 명명된 사도세자의 墓는 정조 즉위 후 園으로 追上하여 永祐園이라 하고 廟를 세우 景慕宮이라 이름하였다. (金承燾, 『景慕宮考』, 『鄉土 서울』 2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4, pp.3~24).

顯隆園行幸에 대비하여 임시처소로서 華城行宮을 건립하여 그 중심부를 漢陽의 雲從街처럼 경계력을 갖춘 신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¹²⁾ 당시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名分으로 부친에 대한 孝를 내세웠지만 정조의 의도가 전적으로 부친에 대한 효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¹³⁾ 정조가 갑자기 病死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는 惠慶宮이 七旬이 되는 해(甲子, 1804)에 다시한번 혜경궁을 모시고 현릉원 전배를 하리라고 계획하였으며¹⁴⁾ 이 때가 되면 王位를 世子에게 물려주고 혜경궁을 모시고 사도세자의 園寢 근처에서 살겠노라고 혜경궁과 약속한 바 있다.¹⁵⁾ 이렇게 정조의 意中에는 漢陽과는 별도로 華城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조는 1795년의 현릉원 전배에 관하여 2년 전부터 諸臣들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¹⁶⁾ 1795년 2월 1일에 整理所에서 임시로 정해 올린 園幸日字를 고려하여 禮曹의 推擇을 거치게 한 뒤¹⁷⁾ 윤2월 초하루에 그 최종 일정을 발표하였다.¹⁸⁾ 원행 일정은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 간에 걸쳐 짜여졌다. 9일 昌德宮을 출발하여 龍驤鳳翥亭에서 晝亭하고 始興行宮에서 經宿한 뒤 이튿날 시흥행궁을 출발하여 肆觀行宮에서 주정한 후 목적지인 華城行宮에 이르렀다. 11일에는 먼저 華城聖廟를 拜謁하고 새로 인쇄한 四書三經과 臧獲를 하사하였다. 謁聖禮를 마친 정조는 이어 丁華觀에서 試士하고 洛南軒에서 試藝한 뒤 放榜에도 친림하였다. 현릉원 전배는 이튿날인 12일에 거행되었다. 그리고 華城의 西將臺로 돌아와 城操式을 열람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夜操式에도 친히 참석 하고 낙담헌으로 돌아왔다. 13일에는 奉壽堂에 親臨하여 혜경궁에게 진찬례를 올리었다. 華城에서의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新豐樓에 臨御하여 四民에게 쌀을 賜給하고 飢民에게 죽을 먹인 뒤 낙담헌에서 벌어진 養老宴에도 참석하였다. 양로연을 끝낸 정조는 華城의 甕城 위와 長安門樓를 둘러보고 訪花隨柳亭으로 돌아와 龍淵을 俯覽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得中亭에서 諸臣들과 御射하고 埋火砲를 관람하였다. 이렇게 제반 행사를 모두 마친 정조는 15일 혜경궁을 모시고 回鑾 길에 올라 華城에 올 때와 같은 일정으로 還宮하였다.¹⁹⁾

12) 孫靑睦, 「世界最古의 계획된 新都市—華城」, 『朝鮮時代 都市社會 研究』, (一志社, 1977), pp.402~451과 『華城城役儀軌』(奎 14586) 참조. 이 외에도 朴廣成, 「正祖의 顯隆園幸과 始興」, 『始興郡誌』, (1989), pp.283~323과 鄭炳模, 앞 논문, pp.98~99에 사도세자의 죽음에서부터 華城이 축조되기까지의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3) 鄭炳模, 앞 논문, pp.98~101 참조.

14) “...敎整理諸臣曰 今日之禮誠千載初有之慶 而來甲子年當爲慈宮七旬 其時拜園進饌又當如今日 今日所用盤卓尊爵之具留華城府 以待十年之重回也”(『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筵說」乙卯閏二月十三日條). 위 기록을 통해 정조는 진찬시에 사용한 盤·卓·尊·爵 등의 용구를 華城府에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10년 후 다시 치를 進饌에 대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5) 李秉岐, 金東旭 校注, 『한등록(閑中漫錄)』, 韓國古典文學大系 第14卷, (民衆書館, 1961), p.519 참조.

16)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筵說」癸丑正月十九日條 참조. 이날 慈宮을 모시고 현릉원을 다녀오하고자 하는 뜻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園幸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임시관청을 整理所로 이름할 것을 결정하고 1794년 12월 11일에 첫 모임을 가졌다(『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筵說」甲寅十二月初十一日條 참조).

17)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啓辭」乙卯二月初一日條 참조.

18) 『正祖實錄』 卷42 19年乙卯閏2月 癸未條(『朝鮮王朝實錄』 卷46, 國사편찬위원회, p.556, 上右)와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傳敎」乙卯閏二月一日條 참조.

정조는 年老한 어머니를 모시고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어려움과 조심스러움이 따를 것을 예상하여 혜경궁이 타고 갈 駕輜를 새로 제작하고²⁰⁾ 露梁津에 영구히 사용할 배다리(舟橋)를 설치하여 漢江을 건너는 한편 이전까지 果川行宮과 沙川行宮을 경유하던 果川路 대신에 길이 넓고 고른 始興路를 새로 닦아 이 길을 통해 華城에 이르게 하였다. 이때 임시처소인 始興行宮도 새로 설치하였다.²¹⁾ 그리고 이 을묘년의 원행에 관한 논의과정에서부터 준비의 진행상황, 행사의 의식절차, 참석자 명단, 소용된 物目과 비용, 수고한 관원에 대한 시상과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하여 儀軌로 印出해 내기까지의 모든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한 총 10권 8책의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새로 주조한 銅活字인 整理字로 인쇄하여 출간하였다.²²⁾

이 의례의 제작을 위해 임시로 儀軌廳이 설치되었고 整理所의 摠理大臣이었던 右議政 蔡濟恭(1720~1799)이 左議政으로 加資되어 다시 총책임자로 일하였다. 『園幸乙卯整理儀軌』의 草記는 1795년 당년에 편성·인출되었으나²³⁾ 완전한 모습으로 출간된 것은 2년이 지난 1797년(정조 21)인 것으로 보인다.²⁴⁾ 이 의례는 혜경궁에게 進上된 것 외에도 궁중에 31件이 內入되고 華城行宮과 五處史庫를 비롯한 各司·各營에 38件이 보관되었다. 또 摠理大臣 蔡濟恭을 비롯하여 整理堂上, 整理郎廳, 儀軌堂上, 儀軌郎廳, 外賓등 31명에게도 1件씩 하사되어 도합 101件이 印出된 것으로 파악된다.²⁵⁾

『園幸乙卯整理儀軌』가 <水原陵幸圖屏>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圖屏을 제작한 畫員의 명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조선시대에는 국가와 왕실의 경사스러운 행사를 치룬 뒤에는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각종 물품이 궁중에 헌상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림은 큰 몫을 차지하였다. 해당 관아에서 비용을 충당하여 공식적으로 제작되어 헌상되는 그림 외에도 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비용을 마련하여 제작되는 그림(稷屏)이 있었다.²⁷⁾ 『園幸乙卯整理

19) 『正祖實錄』 卷42, 19年乙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條(『朝鮮王朝實錄』 卷46, 국사편찬위원회, p.557~559).

20)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筵說」甲寅十一月二十日條와 卷之四「駕橋」참조.

21) 과친로는 고개길이 험준하고 교량이 많아 길을 除治할 때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下民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정조의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始興路는 京畿監司 徐龍輔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1974년 당년에 除治가 이루어졌다. 원래는 衿川路라 불리웠으나 1795년의 園幸에 앞서 이 해 윤2월 1일에 衿川縣監을 縣令으로 陞格시키고 邑號를 舊號인 始興으로 改號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금천로를 시흥로로, 금천행궁을 시흥행궁으로 부르게 되었다.

22)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書誌字의 특징과 그림의 양식적 특징에 관해서는 鄭炳模, 앞 논문, pp.101~115 참조. 정조는 이미 현릉원 천봉에 앞서 1789년 9월에 비변사에 명하여 원행에 드는 비용과 物目, 수행인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園幸定例』를 편찬토록 한 바 있는데 1790년 1월에 완성되었다.

23)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啓辭」乙卯八月十六日條 참조.

24)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傳教」丁巳三月二十四日條와 卷之二「啓辭」丁巳三月二十四日條 참조.

25)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傳教」丁巳三月二十四日條와 卷之二「啓辭」乙卯閏二月十九日條 참조.

26) 이 외에도 卷之一의 儀註는 각 행사의 의례절차와 기물의 배치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卷首의 圖式에는 行事圖 외에 建物圖, 呈才圖, 駕輜·綵花·器用·服飾 등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다.

27) 지금 남아 있는 작품을 통해 본다면 稷屏은 행사도가 아닌 祈福적인 내용으로 꾸며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稷屏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로는 朴銀順, 「純廟朝〈王世子誕降稷屏〉에 대한 圖像的 考察」, 『考古美術』 174號(1987), pp.40~75와 「正廟朝〈王世子冊禮稷屏〉: 神仙圖稷屏의 한가지 예」, 『미술사연구』 제4호(1990),

儀軌』의 財用篇을 보면 을묘년의 원행 경우에도 ‘進饌圖屏’으로 大屏과 中屏을 각각 3좌씩 제작하여 궁중에 헌상하였고 摠理大臣·堂上官·郎廳·監官들도 직위에 따라 규모를 달리한 稷屏을 제작하여 진상하였다. 여기에는 총 2550兩의 비용이 들었는데 모두 빌린돈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이다. 즉 계병을 올리는 官員들은 물론이고 계병을 올리지 않는 別付料·將校·書吏·書寫·庫直·待令·書吏·使令·文書直·使喚軍·大廳軍士·待令軍士·旗手 등도 얼마씩의 돈을 내어 비용을 마련하는데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²⁸⁾ 따라서 이 2550량의 돈이 빌린돈(債)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계병에 드는 비용은 원래 관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후에 나라에서 갚아야 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進饌圖屏 중에서 大屏이 오늘날 전하는 〈水原陵幸圖屏〉일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당시에 도합 3벌의 〈水原陵幸圖屏〉이 만들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水原陵幸圖屏〉을 그린 畫員은 崔得賢, 金得臣(1754~1822), 李命奎, 張漢宗(1768~1815), 尹碩根, 許寔(1762~?), 李寅文(1745~1821)의 7명으로 이들은 혜경궁에게 ‘進饌圖屏’을 進上한 후에 혜경궁과 戶曹로부터 시상받은 바 있다.²⁹⁾ 이들은 모두 1795년을 전후한 시기에 여러 儀軌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그 중 崔得賢은 그에 관해 진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1776년(영조 52) 『莊祖上謚奉園都監儀軌』의 工匠條에 이름이 보일뿐 아니라³⁰⁾ 1789년(정조 13) 사도세자의 園寢을 水原으로 遷奉할 때의 의뢰인 『永祐園遷奉都監儀軌』에 ‘銘旌初次篆字補畫員’으로 이름이 올라있다³¹⁾ 또 『園幸乙卯整理儀軌』의 畫員 중에서도 첫번째로 이름이 쓰여있고 시상 내역을 보아도 金得臣과 더불어 가장 많은 상품을 하사받은 인물이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림 보다는 文字에 관계되는 작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風俗畫家로 잘 알려진 金得臣은 1784년(정조 8) 정조의 아들인 文孝世子가 王世子로 冊封될 때의 의뢰인 『冊禮都監儀軌』 제작에 李寅文과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³²⁾ 같은 해에 영조에게는 여섯번째로, 사도세자에게는 두번째로 尊號를 올릴 때의 『尊號都監儀軌』 제작에도 30세의 나이로 참여하였다.³³⁾ 이때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나 ‘進饌圖屏’을 그린 화원들

pp.101~112 참조.

- 28) 『園幸乙卯整理儀軌』卷之五「財用」內入進饌圖屏及堂郎以下稷屏價磨鍊“內入大屏三坐每坐價錢一百兩 中屏三坐每坐價錢五十兩 摠理大臣一員堂上七員郎廳五員各大屏一坐價錢八十兩 監官二員各中屏一坐價錢三十兩 別付料一人將校十一人各錢二十兩 書吏十六人各錢三十兩 書寫一人庫直三名各錢十五兩 待令書吏二人使令五名各錢五兩 文書直四名各錢四兩 使喚軍九名大廳軍士一名待令軍士一名旗手七十二名各錢二兩” 이러한 예는 華城城役이 끝난 후와 1795년 이후에 치뤄진 進宴·進饌 후에도 그대로 시행되었음을 해당 儀軌를 통해 알 수 있다.
- 29) 『園幸乙卯整理儀軌』卷之五「賞典」駕轎造成後施賞條“…畫員崔得賢卞光復尹碩根…以上各木二疋布疋…”, 慈宮頒下各站賞典條“…畫員崔得賢金得臣李命奎張漢宗尹碩根許寔李寅文…各木一疋”, 進饌圖屏進上後施賞條“…畫員崔得賢金得臣 各木二疋布一疋 李命奎張漢宗尹碩根許寔 各木二疋 李寅文 木一疋 布一疋…并自戶曹頒給” 원래 임금의 陵園行幸은 戶曹에서 관장해 왔던 것이므로 戶曹에서 賞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園幸乙卯整理儀軌』卷之一「筵說」甲寅十二月初十日“…凡陵園行幸戶曹判書治其事…”).
- 30) 『莊祖上謚奉園都監儀軌』(奎 13337) 一房儀軌 都監別單 “畫員 金厚臣 申漢棟 崔得賢…”
- 31) 『莊祖』永祐園遷奉都監都廳儀軌』(奎 13624) 一房儀軌 참조.
- 32) 『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 13200) 一房儀軌 工匠 畫員條 참조.
- 33) 『英祖六尊號莊祖再』尊號都監儀軌』(奎 13297) 賞典 尊號都監別單 畫員條 참조.

이 儀軌 圖式의 밑그림도 그렸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園幸乙卯整理儀軌』에서도 주도적인 입장을 취했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1802년(純祖 2) 『(純祖純元后) 嘉禮都監儀軌』를 거쳐³⁴⁾ 51세 때인 1805년에 『(獻敬惠嬪) 喪禮都監儀軌』의 제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³⁵⁾ 李寅文 역시 혜경궁의 『喪禮都監儀軌』를 제외하고는 김득신과 함께 이름이 올라있다.³⁶⁾ 일반적으로 의궤 제작에는 7명 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화원이 동원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園幸乙卯整理儀軌』의 圖式을 그리는데 참여한 화원도 위의 7명보다 많았을 것이며 그 중 7명이 선발되어 <水原陵幸圖屏>을 그리는데 참여한 것은 아닐까 한다. 이들은 모두 남아있는 畫積을 통해 金弘道 畫風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점이 <水原陵幸圖屏>이 金弘道作으로 전칭되어 왔을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있다.

Ⅲ. <水原陵幸圖屏>의 내용과 특징

1. <奉壽堂進饌圖>(圖 1)

惠慶宮洪氏의 誕辰 一周甲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進饌禮는 華城行宮에 도착한지 3일째 되는 윤2월 13일에 奉壽堂에서 거행되었다.³⁷⁾ 봉수당은 화성행궁의 正堂으로 원래 水原府의 邑治를 옮기기 전 관아건물로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乙卯年 進饌時에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기리는 뜻에서 봉수당이라 편액하였다.³⁸⁾ (圖 9의 <華城行宮圖>를 참조) 이 행사에는 혜경궁의 친인척 82명이 초대되었다.³⁹⁾

화면은 상단에 위치한 봉수당으로부터 中陽門을 지나 하단의 左翊門을 연결하는 行閣과 담장으로 구획되었고 그 안에 진찬의 광경을 묘사하였다. 봉수당 앞 계단에서 뜰에 이르기까지는 임시로 帳殿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대형 遮日이 쳐 있다. 장전 막 왼편에는 혜경궁의 駕輜가 놓여 있다. 마치 갈매기가 날개를 퍼 날고 있는 차일의 형태는 그 기본형이 18세기 중엽 경에 확립된 것인데 여기에 주름의 표현등 세부묘사가 가해져 보다 복잡해 지는 것은 18세기 말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⁴⁰⁾

34) 『(純祖純元后) 嘉禮都監儀軌』(奎 13122) 一房儀軌 工匠秩 참조.

35) 『(獻敬惠嬪) 喪禮都監儀軌』(奎 13608) 二房儀軌 工匠秩 참조.

36) 이인문은 『(文孝世子受冊時) 冊禮都監儀軌』, 『(英祖六尊號莊祖再) 尊號都監儀軌』, 『(莊祖) 永祐園遷奉都監都廳儀軌』와 『(純祖純元后) 嘉禮都監儀軌』에 이름이 보인다.

37) 혜경궁의 周甲誕辰進饌은 그의 生日인 6월 18일에 昌德宮 延禧堂에서 따로 베풀어졌다(『園幸乙卯整理儀軌』 附編 卷之一「誕辰慶賀」참조).

38) 화성행궁 내의 각 건물에 대해서는 『華城城役儀軌』 附編一「行宮」참조. 이전 명칭은 壯南軒으로 乙卯年 進饌 이전의 기록에는 모두 壯南軒이라 쓰고 있다.

39) 초대된 친인척(8촌이내의 외척, 6촌이내의 친족)의 명단은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五「內外賓」참조.

40) 18세기 중엽 이전의 궁중행사도에 보이는 차일의 형태는 사각형과, 초생달 모양이나 三山形으로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 둥근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봉수당 내에는簾이 드리워져 있어서 혜경궁의 位를 비롯하여 內外命婦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봉수당 기둥 밖에 왼편에 虎皮로 된 정조의 位가 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마련되어 있다. 장전 위에는 戎服 차림의 儀賓과 戚臣들이 하사받은 꽃이 놓인 饌卓 앞에 좌우로 나뉘어 列坐하였고 그 중앙에는 女嬭들이 펼치는 舞鼓와 船遊樂이 음악에 맞추어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다. 中陽門 밖에는 혜경궁과 정조를 호위하며 따라온 陪從百官이 역시 좌우로 나뉘어 융복차림으로 앉았는데 찬탁 위에는 술잔과 함께 하사받은 꽃이 꽂혀 있다.

進饌儀禮는 혜경궁에게 揮巾과 饌案, 꽃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 정조가 壽酒를 올리고 代致詞官이 致詞를 낭독하고 나면 이어 정조에게도 휘건과 찬안, 꽃을 올린다. 그리고 나서 내외빈과 배종백관에게도 꽃과 함께 찬안을 마련해 주게 된다. 이날 진찬시에는 혜경궁에게 모두 7번 술잔을 올렸는데 제 1爵은 정조가, 제 2작은 進爵 命婦가 제 3작부터 7작까지는 명부와 의빈, 척신 중에서 혜경궁의 지명을 받은 자가 차례로 올렸다. 술잔을 올릴때 마다 정조와 내외빈에게도 술을 돌리었고 그때 마다 각각 다른 朶才와 그에 맞는 음악이 연주되었다.⁴¹⁾

그림에 보이는 舞鼓는 제 3작을 올릴 때 추가된 朶才였고 船遊樂은 맨 마지막 술잔을 올릴 때 추가된 정재로 생각된다.⁴²⁾ 『園幸乙卯整理儀軌』卷首「圖式」의〈奉壽堂進饌圖〉(圖 10)에는 정조가 혜경궁에게 獻壽할 때 추가된 獻仙桃 朶才가 그려져 있고 선유락에 사용되는 彩船이 鼓樂 오른편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圖屏의〈奉壽堂進饌圖〉(圖 1)에는 이미 헌선도 정재를 마친 뒤 3명의 女官이 헌상된 仙桃가 담긴 銀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정면관이 아닌 오른쪽 위에서 鳥瞰된 儀軌의〈봉수당진찬도〉(圖 10)는 다른 장면들이 1면에 묘사된 데 반해 2면에 걸쳐 비중있게 다루어졌는데, 장전 위만이 크게 부각되었으면서도 훨씬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儀軌의 圖式이나 班次圖는 글로써 설명이 안되는 부분을 보충하고 시각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참고가 되게 한 것이므로 일종의 그림으로 보는 排班圖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의례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택하여 인물과 각종 기물의 자리를 요점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런 의례에 수록된 圖式이 반드시 圖屏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참고 그림으로서 바탕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水原陵幸圖屏〉과 『園幸乙卯整理儀軌』「圖式」의 밑그림을 그린 畫員은 서로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화면 구성과 묘사된 장면이 일치하고 인물의 描法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園幸乙卯整理儀軌』「圖式」중에서〈舞鼓〉(圖 11)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

41) 이상 진찬시의 각종 기물의 배치와 인물의 위치, 의례절차에 대해서는 『園幸乙卯整理儀軌』卷之二「儀註」奉壽堂進饌儀 참조. 그리고 이날의 진찬은 肅廟朝 丙寅年(1686)의 大王大妃進宴과 英廟朝 癸亥年(1743), 甲子年(1744)의 三殿進宴의 例를 참고로 하여 준비된 것이다. (『園幸乙卯整理儀軌』卷之一「筵說」甲寅十二月十三日條 참조.)

42) 선유락은 『園幸乙卯整理儀軌』의 儀註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卷之一「筵說」乙卯閏二月十一條를 보면 정조가 親臨한 가운데 치뤄진 進饌習儀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劍舞와 함께 선유락이 추가졌다. 따라서 進饌 당일에도 마지막 朶才로 선유락이 추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로 얼굴이 작고 신체와 팔이 길어 늘씬한 비례를 갖춘 특징외에도 뒤쪽으로 치렁치렁하게 끌리는 치마자락이나 가슴과 배를 내밀어 허리가 뒤로 젖혀질 듯한 자세는 그 이전의 儀軌나 宮中行事圖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러한 인물유형은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창덕궁 소장본의 〈水原陵幸圖屏〉은 전주박물관 소장본과 동일본에 의해 그려진 듯 설채와 산수묘사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8폭 중 이 〈봉수당진찬도〉(圖 12)만은 전주박물관본과 비교하여 볼 때 화면의 좌우가 뒤바뀌어 그려졌고 밑그림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른 어느 종류의 그림 보다도 방위·방향·반차를 중요시하는 宮中行事圖에서 좌우가 바뀌게 그려졌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이런 종류의 그림을 摹寫할 때는 특히 방위, 반차, 등을 똑같이 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 이 그림에서 좌우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는 해명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창덕궁본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明暗法이 시도되었다. 건물의 지붕뿐만 아니라 차일의 주름에도 약간 푸른색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명암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전주박물관본의 〈봉수당진찬도〉에는 지붕에만 약간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좌우 방향, 명암 사용의 정도, 그리고 생생한 채색 등은 이 창덕궁 소장본이 1795년 행사 당시가 아닌 후대의 모사본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아마도 원래 창덕궁 소장본의 〈수원능행도병〉은 1830년 창덕궁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함께 불타 그 후 국립전주박물관본을 모본으로 하여 移摹한 것으로 추측된다.

2. 〈洛南軒養老宴圖〉(圖 2)

양로연은 진찬례를 치른 다음 날인 윤2월 14일 辰時에 정조가 친림한 가운데 낙남헌에서 베풀어졌다. 여기에는 領議政 洪樂性 등 61세 되었거나 70세 이상 된 隨駕老人 15명과 前參議 李奭祚 등 水原府에 거주하는 老人 384명이 參宴하였다.⁴³⁾

정면에서 조감된 낙남헌과 그 뜰이 軍兵과 侍衛儀仗에 의해 네모지게 둘러싸여 있는 화면 구성은 기본적으로 〈奉壽堂進饌圖〉(圖 1)와 일치한다. 낙남헌 안 北壁에는 정조의 御座가 南向하여 설치되었고 어좌를 중심으로 2品 以上の 羣老가 戎服 차림으로 좌우로 나뉘어 북쪽을 上位로 하여 서로 맞대하여 앉았다. 또 承旨, 史官, 奎章閣臣, 整理堂上 등 入侍官員들도 饌案을 앞에 놓고 열좌하였다. 낙남헌의 앞기둥 밖에는 典樂이 樂工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歌者를 인도하여 올라와 정해진 자리에 섰고 御前의 찬안 위에는 술잔과 음식이 마련되어 있다. 뜰에는 융복 차림의 3품 이하의 羣老와 常時服 차림의 水原府 노인들이 낙남헌을 향하여 열좌하였고 뜰 남쪽 가까이의 行宮 담장에 병풍처럼 덧붙여진 趺聯 사이로 鼓樂이 벌어져 있다. 뜰 바깥에는 노인들의 子孫들이 역시 낙남헌을 향하여 앉아 있다.

43)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節目」華城養老宴時節日과 卷之五「參宴老人」참조.

정조는 御座에 오르자 우선 노인들에게 黃紬巾을 하사하여 새 모양을 한 杖頭에 묶게하고 비단 반 필씩을 나누어 줄 것을 명하였다.⁴⁴⁾ 그리고 나서 양로연이 시작되었다. 먼저 정조에게 進膳하고 進花한데 이어 羣老에게도 饌卓을 마련해 주고 꽃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정조에게 술잔을 세 번 올렸는데 그때 마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執事者는 노인들에게도 羣老酒를 돌리었다.⁴⁵⁾

화면에는 뜰 오른쪽으로부터 세 명의 執事者들이 비단을 한 아름씩 들고 노인들을 향하여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노인들의 지팡이 머리에는 노란 수건과 꽃이 묶여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御前에는 술잔이 올려져 있고 樂工과 歌者가 殿 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에게 첫번째 술잔을 올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뜰 밖의 자손들에게도 집사자들이 찬탁을 마련 중에 있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洛南軒養老宴圖〉(圖 13)에도 역시 같은 장면을 묘사하였다. 다만 낙남헌에서 뜰 아래의 鼓樂이 벌어진 데까지를 화면에 담았으며 인물의 수를 극히 줄이는 등 간략하게 꼭 필요한 것만을 표현하였다. 또 창덕궁본의 〈洛南軒養老宴圖〉와 비교해 보아도 設彩, 특히 服色에서 차이가 날 뿐 두 그림은 서로 동일하다.

3. 〈華城聖廟展拜圖〉(圖 3)

華城 文宣王廟에서의 謁聖儀는 화성행궁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치뤄진 행사였다. 華城聖廟는 수원성곽 남쪽에서 3리 쯤 되는 지점에 南向하여 세워졌는데 북쪽의 大成殿, 남쪽의 明倫堂으로 이루어졌고 이 두 건물은 行閣과 담장으로 연결되어 있다.⁴⁶⁾ 그런데 화성성묘는 1795년 5월에 전면적으로 개축되어 9월에 완성되었다.⁴⁷⁾ 그림에 나타난 聖廟는 새롭게 단장된 후의 모습이며 이는 『華城城役儀軌』 卷首의 「文宣王廟」에 대한 기록과 「圖說」(圖 1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조의 版位는 대성전 앞기둥 밖 동쪽 가까이에 西向하여 설치되었고 朝服을 갖춘 承旨와 史官이 侍衛하고 있다. 贊儀와 引儀는 각각 동·서 계단 아래에 서있고 靑衿服을 입은 儒生들이 대성전 뜰에 좌우로 나뉘어 앉아 있다. 응복 차림의 배종백관은 대성전 문밖에서 정조의 奉審에 참여하고 있다. 정조의 大次가 마련된 명륜당의 담장에는 흰 휘장이 둘러져 있다.⁴⁸⁾ 성묘 들레에는 호위군병과 의장이 도열해 있는데 이들의 긴장되고 딱딱한 모습과 구경나온 백성들의 무리지어

44)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 「筵說」 乙卯閏二月十四日 辰時條 참조.

45) 이상 의례절차에 대해서는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 「儀註」 洛南軒養老宴儀와 『春官通考』 卷六十五 「嘉禮」 宴禮 養老宴儀今儀 참조. 이 양로연은 英廟朝 癸巳年(1773)의 進饌 다음날에 있었던 양로연에 의거하여 設行되었다(『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 「筵說」 乙卯二月二十五日條 참조).

46) 『華城城役儀軌』 附編一 「壇廟」 文宣王廟條와 卷首 「圖說」의 文宣王廟圖를 참조.

47) 이날 성묘에 전배하고 入侍하였을 때 정조는 聖廟의 건물이 조잡하고 단청도 흐리며 시설이 모양을 갖추지 못함을 지적하고 곧 수리할 것을 명령하였다(『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筵說」 乙卯閏二月十一日條 참조).

48) 이상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 「儀註」 華城聖廟展拜儀 참조.

늘어선 자유로운 분위기가 매우 대조적이다.

이 행사는 화성행궁 밖에서 치루어진 때문인지 聖廟 건물 내에서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배경을 행사장면과 대등한 비중을 두어 화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역시 산으로 성묘를 돌글게 에워싸고 그 안에 행사를 전개시키는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4면이 나즈막한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성묘 주변의 지형은 실제 주변의 山勢가 많이 가미된 듯 사실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점은 『園幸乙卯整理儀軌』의 〈謁聖圖〉(圖 15)와 비교해 보면 더욱 수궁이 간다. 圖屏의 〈華城聖廟展拜圖〉(圖 3)와 동일한 화면구성을 지닌 이 그림의 산수배경을 보면 제일 높은 북쪽의 산이라든가 화면 아래로 之字로 이어진 길, 기와집과 초가집의 위치, 수목의 배치, 특히 화면 하단 우측에 유난히 많이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의 모습에서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변의 경관까지도 보이는 그대로 옮겨 놓아 기록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여기에 구경나온 주민들의 모습이 더욱 현장의 느낌을 잘 전달해 준다.

전주박물관본의 산수처리를 살펴보면 짧은 皮麻皴으로 산의 주름을 나타낸 위에 靑綠色으로 채색하였고 그 위에 잔잔한 톱점을 찍어 부드럽고 둥근 土山의 질감을 표현하였다(圖 16). 역시 의례의 〈謁聖圖〉(圖 15)에서도 비록 木版畫여서 약간 변형되기는 하였으나 한 방향으로 나란히 계속된 짧은 선들이 부드러운 土山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靑綠色 설채법을 보여주는 전주박물관본(圖 17)과는 달리 창덕궁본의 〈華城聖廟展拜圖〉(圖 18)는 짧은 피마준 위에 淡彩를 가미하여 기법적인 차이를 느끼게 한다. 또 언덕의 형태가 견고한 양감을 잃고 흐트러지는 등 산이나 나무를 묘사하는 과정에서의 미숙함과 기친 표현이 드러난다. 한편 차일의 주름과 그 아래의 그늘진 곳, 대성전의 기둥과 계단에서도 적극적인 명암법의 사용을 볼 수 있다(圖 19). 특히 단일 방향의 광선에 의한 명암처리는 한단계 진전된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점은 창덕궁본이 후대에 전주박물관본을 모본으로 하여 그려진 모사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대성전 내의 정조 자리 앞에 나란히 俯伏한 인물의 모습이다(圖 19). 똑같은 방향과 높이에서 내려다 본 같은 자세의 인물이 〈奉壽堂進饌圖〉(圖 20)에서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前者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서로 비스듬이 공간속에 놓여 있지만 후자에 보이는 부복한 命婦는 마치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처럼 아래위로 묘사되어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차이는 밑그림을 그린 화원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명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화원들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4. 〈洛南軒放榜圖〉(圖 4)

정조는 聖廟展拜를 마치고 유생들을 試取한 뒤 낙남헌에서 거행된 放榜에도 親臨하였는데 이때의 광경을 그린 것이 바로 〈洛南軒放榜圖〉(圖 4)이다. 과거의 設行은 『園幸定例』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⁴⁹⁾ 즉일방방은 庚戌年(1790년, 정조 14) 園幸時에 設行된 文武科 庭試때 즉일방방한 例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⁵⁰⁾ 이날의 과거는 文武科庭試別試로 華城을 비롯한 廣州, 始興, 果川의 四邑 儒生들에게 자격이 주어졌다.⁵¹⁾ 그 결과 문과에서는 甲科의 崔之成 등 5명, 무과에서는 甲科의 金寬 등 56명이 시취되었다.⁵²⁾

그림(圖 4)을 보면 배경은 완전히 배제되고 중앙 상단에 배치된 낙남헌을 중심으로 徽扇侍衛와 承旨, 史官, 奎章閣臣, 整理堂上 등 入侍官員들이 侍立해 있고 급제자(舉人)의 이름을 호명하는 放榜官, 致詞를 대신 낭독하는 代致詞官, 시험감독을 하였던 吏曹正郎과 兵曹正郎 등 행사의 진행을 맡은 집사관들이 계단 아래의 정해진 자리에 서 있다. 또 합격증서인 紅牌가 놓인 紅牌案, 임금의 하사한 御賜花가 놓인 御賜花案, 술과 안주가 마련된 酒卓이 각각 문·무과의 것이 구별되어 준비되어 있다. 뒤편에는 公服 차림의 文武科 舉人들이 각각 좌우로 나뉘어 섰는데 머리에 모두 어사화를 꽂고 있다(圖 21). 길 동쪽에는 1품 이하의 文官이, 서쪽에는 宗親과 1품이하의 武官이 戎服에 插羽한 모습으로 舉人들을 향해 서 있으며 길 동쪽의 문관 뒤에는 監察과 吹打가 序列해 있다.⁵³⁾ 여기에서도 화면 하단의 구경나온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위쪽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다른 자유스럽고 어수선한 군중의 분위기가 잘 느껴진다(圖 26).

방방절차는 이름을 호명당한 급제자들이 뒤편에 마련된 자리로 나아가 서면 이들에게 紅牌, 御賜花, 술과 안주, 蓋를 차례로 나누어 주고 치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⁵⁴⁾ 화면에는 어사화를 하사 받은 후의 모습이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문과 급제자 12명은 그 수대로 그려졌으나 무과 급제자는 실제 인원인 56명 보다 훨씬 많은 154명이나 그려져 있다. 이것은 급제자의 수에 관계없이 화면의 여백이 허락하는 대로 그려 넣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⁵⁵⁾ 이점은 <洛南軒養老宴圖>(圖 2)에서도 실제 참여한 노인의 수는 모두 384명인데 화면에 그려진 수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50명이었던 것과 함께 설명될 수 있겠다.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放榜圖>(圖 22)에도 문무과를 구별하지 않고 여백이 허락하는대로 42명의 인물을 적당히 배열해 놓고 있다.

49) 『園幸定例』「傳教」庚戌 正月初一日 “...水原等三邑儒武 當設科試取自此每歲園幸...”

50)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啓辭」甲寅十二月十九日條 참조.

51) 庚戌年 文武科 庭試때에는 수원, 광주, 과천의 三邑에 사는 유생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번에 시흥(衿川) 유생들에게도 許赴되었다.

52) 그 명단은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榜目」華城文科別試榜과 武科別試榜 참조. 급제자는 정조의 명에 따라 화성 출신자 2, 광주, 시흥, 과천 출신자 각각 1의 비율이 되도록 끌고루 시취된 것이다.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筵說」乙卯閏二月十一日 辰時條 참조.

53) 軒架와 鼓吹의 설치가 곤란하여 대신 左右의 吹打로 대신하였다.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節目」華城文武科 親臨試取時節目 참조.

54)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儀註」洛南軒放榜儀와 『國朝五禮儀』 卷之四「嘉禮」文武科放榜儀 참조.

55) 이점은 이미 李洪烈, 「洛南軒放榜圖와 惠慶宮洪氏의 一周甲」, 『史叢』 12·13合輯, (高大史學會, 1968), pp.519~535에서 지적된 바 있다.

5. 〈西將臺夜操圖〉(圖 5)

화성행궁에 도착한지 이틀째 되는 윤2월 12일 현릉원전배를 마치고 돌아온 정조는 화성성곽의 西將臺에서 군사를 조련하는 城操式을 관람하고 저녁식사 후 거행된 夜操式에도 참석하였는데 그림(圖 5)에는 해가 진 뒤 행해진 야조식의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서장대는 화성성곽에서 가장 높고 가파르며 사방을 훤히 조망할 수 있는 최적지인 八逢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화성성곽의 모양은 남북으로 약간 긴 버들잎 모양이지만⁵⁶⁾ 세로로 긴 화면의 조건에 따라 상단에 배치된 서장대를 중심으로 화성성곽은 동서로 길게 모양지워졌다. 그 중앙에 화성행궁의 전모가 비교적 크게 묘사되어 있고 그 아래로 새로 조성된 화성의 시가지 모습이 전개되어 있다.

1794년에 시작된 화성성곽의 修築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었고 우선 정조의 행차가 지나가는 곳만을 서둘러 마친 단계였다.⁵⁷⁾ 1795년 원행 당시에는 서울에서 화성으로 들어올때 통과해야 되는 華城의 北門인 長安門, 西將臺, 화성에서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는 訪花隨柳亭과 여기서 굽어 보이는 곳의 龍淵, 화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華川이 통과하는 水門인 華虹門, 그리고 현릉원 행차시 통과해야 하는 화성의 南門인 八達門과 그 주변의 성곽만이 완성된 상태였다. 그림(圖 5)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화성의 東門인 倉龍門과 西門인 華西門은 아직 기초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華城城役儀軌』 卷首「圖說」의 倉龍門 모습(圖 24)을 보면 사다리꼴의 陸築 가운데에 아치형의 虹霓門을 내고 그 위에 우진각 지붕으로 단층 누각을 올린 다음 앞쪽에 반원형의 甕城을 쌓은 형태이다. 그런데 창룡문은 1795년 9월에야 완성되었으며 웅성은 그 다음해인 1796년 8월에 만들어졌다. 또 창룡문과 거의 비슷한 제도로 축조된 화서문도 누각은 1796년 1월, 웅성은 8월에야 세워졌다. 따라서 그림(圖 5)에는 창룡문과 화서문에 모두 웅성이 표현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水原陵幸圖屏〉의 완성시기는 행사일시인 윤2월을 한참 지난 1796년 1월 이후에서 8월 이전으로 좁혀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것은 창룡문에서 팔달문 사이에 표시된 東一舖樓와 東二舖樓가 1796년 7월 초에 완성된 점, 또 앞서 살펴본 〈華城聖廟展拜圖〉(圖 3)의 새로 개축된 文宣王廟도 1795년 9월에 완성되었던 점을 통해서도 추정된다.⁵⁸⁾

화면(圖 5)을 보면 서장대 내에는 여느때와 같이 入侍官員들이 侍立해 있고 兵曹判書, 壯勇外使, 參現의 명령을 받은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 領郭寧, 判府事도 老軀를 이끌고 참가하였다. 이때

56) 성역 이전에 이미 市街가 형성되어 있던 華城의 경우 성벽을 원형으로 모양있게 쌓으려니 동북쪽에 위치한 많은 民家가 성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결국 성을 민가 바깥으로 내어 쌓았다. 따라서 남북으로 좁고 긴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다. 『華城城役儀軌』 卷首〈華城全圖〉 참조.

57) 城役은 甲寅(1794) 11월 10일 임시로 멈추었다. 그 후 정조가 行幸 한다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이듬해 1월 13일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다(『華城城役儀軌』 卷首「時日」各項日字 참조).

58) 『華城城役儀軌』 卷首「時日」推擇日時, 各項日字 참조.

정조의 명령에 따라 정조를 비롯한 大臣들과 임금의 신분을 보호하는 임시적인 別雲劍使는 갑옷과 투구를 갖추었고 그 외에는 모두 『國朝五禮儀』에 따라 器服을 입었다.⁵⁹⁾ 이 군사조련은 3000여명의 校卒과 1000여명의 各營 軍恰이 참여하였고 약 400匹의 말이 동원되는 큰 규모였다.⁶⁰⁾ 이 교졸들이 서장대 주변과 紅箭門, 그리고 화성행궁의 정문인 新豐樓 주위를 비롯하여 성곽을 따라 서열하고 있다.

夜操式은 밤에 거행되므로 낮에 치뤄지는 晝操式과는 조금 다른 절차로 진행되었다.⁶¹⁾ 먼저 城에 오르는 登城, 伏路兵이 발포하는 發伏路, 성문을 닫는 閉城門, 햇불을 밝히는 演炬, 旗를 내리는 落旗, 성내에 등을 다는 懸燈, 시간을 알리는 傳更, 등을 내리는 落燈, 성문을 여는 開城門, 伏路兵이 철수하는 收伏路, 마지막으로 성에서 내려오는 下城의 순으로 거행된다. 그 중 화면에 묘사된 광경은 新豐樓門이 닫혀있으며 성곽을 쪽 돌아가며 안쪽으로 햇불이 밝혀져 있고 城內 人家에 설치된 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懸燈 후 傳更이 있기 전까지의 휴식시간의 광경을 圖繪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오를 헤치고 자유롭게 앉아 쉬거나 음식을 날라다 먹는 교졸들의 모습이 이를 확인해 준다. 『園幸乙卯整理儀軌』의 〈西將臺城操圖〉(圖 27)에도 역시 햇불과 人家의 門 앞에 등이 달려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같은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절정을 이루는 성내의 시가지에 불이 밝혀지는 懸燈 장면을 선택하여 가장 화려한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분홍꽃이 만발한 꽃나무가 초봄임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화성행궁 주변의 산수묘사는 역시 짧은 피마준과 태점으로 표면처리한 위에 청록색으로 설채된 산과 土坡, 끈게 가지를 뺀 꽃나무와 淡墨으로 가볍게 처리된 버드나무로 이루어져 있다(圖 25). 이것은 〈華城聖廟展拜圖〉(圖 16)와는 같은 描法이지만 후대의 모사본으로 생각되는 창덕궁본의 〈西將臺夜操圖〉(圖 26)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창덕궁본의 토파와 바위는 견고한 양감을 잃고 그 주름만이 형식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녹색으로 담채된 버드나무 가지의 휘어짐이나 만개한 꽃을 나타내는 호분의 사용도 일률적으로 반복되는데 그쳐 서장대와 화성행궁과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도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外形만을 형식적으로 그리는 모사본 특유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6. 〈得中亭御射圖〉(圖 6)

정조는 14일 양로연을 끝내고 申時에 御射臺가 있는 得中亭에 나아가 활쏘고 불꽃놀이를 즐겼는데 이때의 광경을 그린 것이 바로 〈得中亭御射圖〉(圖 6)이다. 득중정은 현릉원 천봉 후 1790년 첫번째 맞는 사도세자의 탄신일에 水原府로 행차하였을 때 御射하고 그 射亭을 득중정이라

59)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筵說」乙卯閏二月十二日 申時條 참조.

60)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啓辭」乙卯閏二月初三日 참조.

61)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儀註」夜操式 참조.

명명한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1794년 가을에 득중정을 老來堂 서쪽으로 옮기고 그 옛터를 넓게 닦아서 洛南軒을 지었던 것이다.⁶²⁾ 따라서 그림에 보이는 이날의 어사는 새로 옮긴 장소의 득중정에서 치루어진 것이다.

이 御射에는 모두 19명의 신하가 陪射하였다. 柳葉箭으로 여섯 차례, 小布에 다섯 차례, 掌革에 한 차례씩 돌아가며 쏘았는데 정조는 掌革에 3발이나 적중시켰다. 그러자 정조는 4년동안 활쏘기를 버리고 연습하지도 않았는데⁶³⁾ 오늘 적중한 것은 우연일 따름이며 洪樂性(1718~1798)도 8旬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小布에 3발을 적중시킨 것 또한 희귀한 일이라고 말하며 諸臣에게 날이 저문 다음 다시 小的과 좌우에 2줄의 횃불을 세우고서 한번 더 활쏘기를 선언하였다. 이때 두 차례 巡射한 결과 정조는 5발을 맞추었다. 활쏘기를 마친 뒤에는 趙心泰에게 명하여 埋火砲를 試放토록 하였다.⁶⁴⁾ 그림에는 바로 이 장면이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화면(圖 6)을 보면 좌측 위쪽에 차일이 쳐진 낙남헌이 작게 배치되고 그 안에 御座가 마련되어 있다. 낙남헌 뒤로 老來堂의 용마루가 보이고 거기서 다시 우측으로 꺾인 곳에 위치한 득중정에도 사각형의 흰 차일이 설치되어 있다. 그 아래에 혜경궁의 가교가 있고 命婦들이 侍立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사 후의 불꽃놀이에는 혜경궁도 구경을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매화포를 쏘아 불꽃을 즐기는 당시의 광경은 『華城日記』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매화를 하시는데 신기전이 일시에 하늘에 올라가니 몇 천 백인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면에 줄불이 왕래하여 이 불이 제 가 지르매 게서 불이 일어나고, 저 불이 예 와 지르매 또 불이 일어나 지로소 소리에 산악이 무너지는 듯 진동하니 그런 장관이 또 다시 어디 있으리요. 군마들이 다 놀라 뛰어 나가더라”⁶⁵⁾

라는 귀절은 깜깜한 하늘에서 굉음과 함께 떨어지는 불꽃의 화려함과 그러한 모습을 놀라움과 신기함으로 바라보는 구경꾼들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준다. 그림에서도 매화포 주변에 몰려 있는 구경꾼들의 흥분됨과 소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圖 28).

어사대 우측에는 翠屏을 경계로 藏春閣이 서있고 그 아래로 화성행궁의 서쪽 담장이 조금 보인다. 화면 아래로 행궁 밖에 있는 몇 채의 건물이 일렬로 배치되었으며 하단에는 화성의 성벽으로 마감되었는데 그 왼편 구석에 보이는 이층 누각이 화성의 북문인 長安門이다. 이렇게 <득중정어사도>는 득중정으로부터 장안문까지 매우 넓은 시각으로 조감되었다. 어사 장면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까지도 보이는 그대로 화면에 담으려는 의도가 짙게 느껴진다.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는 약간

62) 『華城城役儀軌』附編一「行宮」洛南軒, 老來堂, 得中亭條 참조.

63) 1790년 어사 후 그 射亭을 得中亭이라 명명한 이래 1791년과 1792년의 園幸때도 御射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활쏘기를 하지 않았다.

64) 『園幸乙卯整理儀軌』卷之一「筵說」乙卯閏二月十四日 申時條 참조.

65) 李義平, 姜漢永 校註, 『華城日記』, 新丘文庫3, (新丘文化社, 1974), pp.84 ~85 참조.

산만해지기는 하였으나 사실적인 현장감은 보다 잘 전달되었다.

『園幸乙卯整理儀軌』의 〈得中亭御射圖〉(圖 29)에는 햇불이 늘어서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역시 夜射의 광경을 圖繪한 것이지만 행사장면만을 포함시켰다. 어좌가 어사대 위에 마련되어 있고 小的 양 옆에는 화살이 적중하면 치는 북과 빗나갔을 때 치는 金(징)을 든 군병이 서 있다.⁶⁶⁾ 이렇게 간략하게 꼭 필요한 것만을 묘사하는 가운데에서도 낙남헌의 계단석에 표시된 태극문양은 현재 유일하게 화성행궁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실제 낙남헌의 계단석(圖 30)에서 그대로 확인될 정도로 세부까지도 소홀함 없이 가능한 한 사실에 충실했음을 말해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4. 〈還御行列圖〉(圖 7)

〈水原陵幸圖屏〉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그림(圖 7)은 종래에는 화성행궁을 출발하여 현릉원에 이르는 路程 중의 어느 한 지점에서 본 動駕 행렬을 그린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세부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 장면은 華城에서 제반 행사를 모두 마치고 윤2월 15일 화성행궁을 출발하여 肆覲行宮에서 晝亭한 후 숙소인 始興行宮으로 가는 도중에 행렬을 잠시 멈추고 혜경궁에게 米飮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圖繪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행일정 가운데 이렇게 정조와 혜경궁의 가교가 모두 움푹인 동가행렬은 창덕궁에서 화성행궁, 화성행궁에서 현릉원까지의 왕복노정에 서만 볼 수 있다. 그런데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節目」의 기록을 보면 화성행궁에서 현릉원으로 展拜禮를 치르기 위해 거동할 때는 경건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插羽·佩劍한 것을 게거한다고 쓰여 있다.⁶⁷⁾ 그러나 그림에 陪從百官들은 융복에 삼우·괘검한 상태임을 볼 수 있다(圖 31). 또 〈水原陵幸圖屏〉의 제3폭에서 8폭까지는 행사일정 순으로 그림이 배열되었는데 이 〈還御行列圖〉는 제7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한강을 건너 창덕궁으로 돌아오기 전의 한 지점에서 본 동가행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긴 動駕行列이 지나고 있는 곳은 어디 쯤일까. 화면 윗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정조의 御馬와 혜경궁의 駕輜는 정지 상태이며 그 주위에는 흰 휘장이 둘러져 있고 행렬 속의 인물들은 모두 화면의 윗부분을 향해 돌아서 있다. 또 행렬 왼편 바깥으로 혜경궁이 먹을 음식을 실은 水刺架子(圖 32와 비교)가 나와 있고 그 곁에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임시 幕次도 설치되어 있어서 米飮을 만들어 혜경궁이 그것을 들고 있는 중으로 생각된다. 『園幸乙卯整理儀軌』에는 혜경궁이 거동할 때 중간 중간에 쉬면서 米飮과 茶盤을 든 기록이 있다.⁶⁸⁾ 그 중에서 〈還御行列圖〉의 배경이 되는 지점은 시흥행궁에 도착하기 전 잠시 쉬어가던 安陽橋 앞길인 것으로 여겨진다.⁶⁹⁾ 『園幸定

66) 『國朝續五禮儀』 卷之四 軍禮 大射儀 참조.

67)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二「節目」大駕陪慈宮詣顯隆園時節目 참조.

68)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一「筵說」乙卯閏二月初九日, 十日, 十二日, 十五日, 十六日條 참조.

69) 『園幸定例』「道路橋梁」條에는 安養橋란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念佛橋, 萬安橋라는 다리 이름이 있는데 그 중 만안교는 安養川에 가설된 항구적인 石造橋이다. 따라서 안양교는 석조교로 바꾸기 전의 왕의 행차때 마다 임시로 가설했던 목조교일 때의 명칭이 아닌가 생각된다.

例』의「道路橋梁」條에 의하면 시흥행궁에 이르기 전에 俗稱 ‘박미고개’라는 고갯길을 지나게 되는 데 바로 이 고개를 넘으면 시흥행궁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⁷⁰⁾

화면(圖 7)에 나타난 지세를 보면 혜경궁의 가교 위편으로는 굽이굽이 개천이 흐르는 벌판(大溥山前坪)이 펼쳐지고, 아래로는 그와 대조되는 산(溥山)이 길게 뻗어 있다. 따라서 화면 아래부분에 위치한 시흥행궁으로 가는길은 오른편으로 산을 끼고 비교적 가파른 고개를 넘게 되어 있어 『園幸定例』의 기록과도 일치하게 된다. 또 시흥행궁에는 사면에 흰 휘장이 둘러져 있고 주변을 군졸들이 호위하고 있어서 정조와 혜경궁의 어가는 이곳으로 들어가 머물 장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 산수모습을 배경으로 전개된 〈還御行列圖〉는 6100여명의 인원과 1400여필의 말이 동원되는 장대한 動駕行列을 묘사한 것이다.⁷¹⁾ 좁고 긴 화면에 가능한 한 긴 행렬을 포치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솜씨는 8폭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어가를 중심으로 앞 뒤로 이어지는 儀仗과 陪從百官, 護衛軍兵의 행렬은 『園幸乙卯整理儀軌』의 〈班次圖〉(圖 33)의 순서와 그대로 일치한다. 잘룩한 허리에 뒤로 젖혀질 정도로 가슴을 쪽 편 균형잡힌 인물들은 〈奉壽堂進饌圖〉(圖 10)에서 보았던 인물과 같은 유형으로 의궤의 〈班次圖〉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인물묘사가 金得臣의 솜씨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길가에 무리지어 있는 구경꾼들의 모습에서는 그의 風俗畫의인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이 〈수원능행도병〉은 김홍도에게 전칭되기도 하였으나 그의 이름은 실제로 〈園幸乙卯整理儀軌〉의 화원 명단에 없으며 그와 가까운 이인문의 이름이 나타난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의 수지법이나 반원형으로 축 늘어진 가지의 버드나무, 소나무의 표현, 米点과 피마준을 적당히 섞어 처리한 土坡, 그리고 각진 암산을 나타내는 준법등은 김홍도, 이인문을 포함한 당시의 다른 화가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記錄畫, 특히 궁중행사도는 일정한 형식 안에서 제작되어야 한다는 보수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水原陵幸圖屏〉은 여느 행사도 보다도 당시 화단의 경향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당시 화단의 서양화 기법의 수용 정도를 짐작케 하는 명암법, 투시도법, 원근법의 사용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화면 위쪽으로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인물도 작게 표현되면서 보다 흐리게 設彩되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공간의 깊이를 잘 전달하고 있다.

창덕궁본(圖 35, 38)은 설채와 표현에서 앞의 것과 같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호암미술관의 〈還御行列圖〉(圖 36)는 상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매우 우수한 필치가 구사되어 있다. 산수나 인물의 세부묘사가 전주박물관본(圖 34, 37) 보다 더 치밀하며 더 많은 구경꾼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

70) 李明奎, 「園幸定例에 나타난 京水 路程語 研究」, 『人文論叢』 제16집, (한양대학교인문과학대학, 1988), pp.5~32 참조.

71) 『園幸定例』에 의하면 陪從百官과各司의吏隸 1100명, 隨駕하는 各營의 將卒 5044명, 兵曹의 差備軍 등 86명을 포함하여 6230명이 園幸에 참가하였다. 또 戰卜馬 1317필, 司僕侍馬 100필 등 1417필의 말이 동원되었다(朴廣成, 「正祖의 顯隆園幸과 始興」, pp.290~293).

는 등 동일본에 의한 그림은 아닌 듯 싶다. 오히려 호암미술관본(圖 39, 40)이 원본에 더 가까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8폭 중에서 한폭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따로 이것만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 혹은 나머지 7폭에서 분리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우수한 필치와 세부 묘사에 깃든 정성스러움의 정도만으로 전주박물관본과 창덕궁본과의 전후관계를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의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8. <漢江舟橋還御圖>(圖 5)

마지막 폭인 <漢江舟橋還御圖>는 15일 시흥행궁에서 하루밤을 지내고 16일 그곳은 출발하여 龍驤鳳翥亭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노량진에 설치된 배다리(舟橋)로 漢江을 건너 昌德宮으로 돌아가는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舟橋는 정조가 현릉원 천봉대인 1789년(정조 13)에 처음 사용하였다. 수원으로 가는 길목의 가장 적합한 곳인 노량진에 항구적인 주교와 함께 舟橋司를 설치하였고 노량진 남쪽에 용양봉저정을 세워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주교사도 이곳에 두어 舟橋堂上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였다.⁷²⁾

주교의 가설에 대해서는 1790년에 제정된 『舟橋節目』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⁷³⁾ 먼저 강 양 기슭에 배 높이의 船艙을 식축으로 영구히 만들고 36척의 橋排船을 중앙에서부터 大小高下에 따라 차례로 연결하여 무지개 모양이 되도록 한 뒤, 그 위에 바닥을 깔고 240쌍의 난간을 세운다. 紅箭門 3개를 설치하고 각 교배선의 뱃머리와 꼬리에는 배와 물을 상징하는 軍旗와 바람의 방향을 점칠수 있는 相風旗를 1개씩 세운다.⁷⁴⁾ 이러한 주교의 설치는 그림에도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화면 상단 우측에 용양봉저정이 보이고 그 아래에서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좌측 구석으로 이어지도록 주교가 길게 배치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八 果川縣 備考篇의 “노량진 남쪽 언덕에는 龍驤鳳翥亭이라는 行宮이 있었는데 나무 건너 행차할 때 여러 임금들이 잠시 멈추고 머물렀으므로 좌우에 別將所와 舟橋가 있다”라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圖 41)

그림에는 주교 중앙에 있는 홍살문 아래를 혜경궁의 가교가 통과하고 있고 御馬 위의 정조가 호위군병에게 몇 겹으로 싸인 채 그뒤를 따르고 있다. 오른쪽 위에서 비껴 조감된 주교는 멀어질 수록 좁게 그려져 원근감을 나타내었다. 화면 상단 왼편의 커다란 바위는 박락이 심하여 그 필치가 희미하기는 하나 작은 부벽준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돌의 단면을 나타낸 흔적이 보인다. 창덕궁

72) 李鉉淙, 「舟橋司 設置와 變遷」, 『鄉土 서울』 3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pp.7~9 참조. 前代의 임금들은 行幸時에 강을 건너야 할 때는 龍舟를 이용하였다. 후에 연산군이 浮橋를 가설한 이래 역대 왕들은 이 부교를 이용하였으나 설치했다 철거했다 하는 번거로움과 민폐가 심하였으므로 이를 피하고 보다 안전하게 渡江하기 위해 정조는 주교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73) 『正祖實錄』 卷30 14年庚戌 7月 己卯條 (『朝鮮王朝實錄』, 卷46, 국사편찬위원회, p.149, 上左).

74) 『園幸乙卯整理儀軌』 卷之四 「舟橋」 橋排條 참조.

소장본(圖 42)에서는 필치가 변형되어 원래의 모습을 추측하기 어려우나 『園幸乙卯整理儀軌』의 〈舟橋圖〉(圖 43)의 바위를 보면 ㄱ자로 깎인 암벽의 표면질감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측할 수 있겠다. 강물은 담청색으로 가볍게 처리했으면서도 농담의 변화를 주어 수채화 같은 맛을 풍긴다. 여기에 가는 波狀線으로 잔잔한 물결을 묘사하여 평온하게 물이 흐르는 모습을 잘 나타내었다.

이상에서는 〈수원능행도병〉 8幅을 한쪽씩 차례로 그 행사의 내용과 표현된 모습, 그리고 회화 양식의 특징 등을 살펴 보았다. 그 과정에서 〈국립전주박물관본〉, 〈창덕궁본〉, 그리고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그림과 비교하며 이들간의 상호관계도 아울러 고찰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수원능행도병〉이 그 이후에 제작된 진연·진찬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고자 한다.

Ⅳ. 〈水原陵幸圖屏〉이 進宴·進饌圖에 미친 영향

이 〈水原陵幸圖屏〉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제작되는 進宴圖와 進饌圖의 정형이 되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Ⅳ章에서는 이전의 進宴·進饌圖와 비교하여 그 전후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8세기 이후의 유작으로 남아 있는 궁중행사도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관원들이 글을 올려 하례하는 陳賀 장면을 담은 陳賀圖를 비롯하여 進宴圖, 進饌圖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8曲이나 10曲의 대형 병풍형식이어서 주목되는 바이다. 물론 궁중행사도류에 있어서 이 〈水原陵幸圖屏〉 이전에 병풍형식으로 제작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721년(경종 1) 1월 6일에 경종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행한 인사행정을 기념하여 兵曹堂郎과 承旨, 史官의 이름으로 제작된 稷屏인 〈景宗親政稷屏〉(圖 44)과⁷⁵⁾ 1740년에 제작된 〈進宴圖屏〉(圖 45)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景宗親政稷屏〉은 10曲 병풍으로 親政 장면을 圖繪한 行事圖와 序文이 제1쪽에 있고, 8쪽에 걸쳐 蘭亭稷會를 소재로 한 中國風의 故事人物圖가 그려져 있으며, 마지막 쪽에는 座目이 쓰여 있다. 이 중에서 주가되는 그림은 난정계회의 인물도이고 친정 장면은 서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에서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병풍형식의 宮中行事圖로 분류될 수는 없겠다. 반면에 6曲의 〈進宴圖屏〉(圖 45)은 3쪽에 걸쳐 진연 장면이 그려지고 나머지 3쪽에 座目を 기록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다. 正殿과 殿庭만이 크게 부각되고 正門과 行閣으로 화면을 제한하여 전개된 시야가 〈奉壽堂進饌圖〉(圖 1)에 비해 좁은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 각 쪽의 길이는 작고 3쪽에 걸쳐 한 장면을 이루게 되므로 세로 보다는 가로가 긴 화면을 만들고 있는 것도 그 이후의 進宴圖와 구별되는 점이다.

그런데 正祖朝에 들어 〈水原陵幸圖屏〉과 같은 대형 병풍그림의 유행을 예고하는 圖屏이 하나 전하는데 바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소장의 〈正祖世子冊封圖屏〉이 그것이다. 이 圖屏은 1784년(정조

75) 『景宗實錄』 卷3 元年辛丑一月 己巳條 참조.

8) 8월 2일 정조의 아들인 文孝世子가 王世子로 책봉되는 冊禮儀 광경을 그린 것이다.⁷⁶⁾ 모두 8幅으로 된 이 병풍은 서문과 世子侍講院 소속 25명의 이름이 적힌 좌목 각 1폭씩, 그리고 두가지 행사가 각각 3幅씩을 차지하도록 되어있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正殿과 正門 밖까지도 화면에 담겨져 사실상 길고 좁은 화면의 제약이 극복된 형식이다. 이렇게 미흡하나마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추측해 보면 8곡에서 10곡에 이르는 대형 병풍형식의 궁중행사도는 정조대에 이르러 18세기 후반 경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면 1795년 <奉壽堂進饌圖> 이전에는 어떠한 양식으로 진연·진찬 장면이 그려졌을까. 현재 남아있는 그림 중에서 필자가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1740년의 <進宴圖屏>(圖 45)을 제외하고는 모두 軸이나 畫帖 형식으로 남아있다.

우선 明宗15年(1560) 9월 19日 瑞葱臺에서 베푼어진 曲宴의 광경을 그린 <瑞葱臺親臨賜宴圖>(圖 46)를 보면 화면을 반으로 나누어 위쪽에 행사의 모습을 그리고 아래에는 序文과 座目を 써넣은 軸으로 이루어져 있다.⁷⁷⁾ 당시 議政府 左贊誠이던 洪暹(1504~1585)의 서문이 명종19年(1564) 4월 16일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그림도 이 때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 1710년(숙종 36) 4월 25일 숙종의 聖壽 50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崇政殿에서 열린 進宴 장면을 그린 <崇政殿進宴圖>(圖 47) 역시 그림과 座目으로 이루어진 軸으로 꾸며져 있다.⁷⁸⁾ 이 둘은 모두 조선 초기에 많이 그려진 契會圖의 粧潢 양식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肅宗32年(1706) 작품으로 생각되는 <進宴圖帖>(圖 48)은 王世子를 비롯하여 100여명의 大小臣僚들이 모인 가운데 임진란 이후 100여년 만에 仁政殿에서 거행된 進宴 광경을 그린 畫帖이다.⁷⁹⁾ 崔錫鼎(1646~1715)이 숙종 38(1712)년에 쓴 後序에 의하면 소홀하였던 진연이 盛事로 다시 이루어짐을 기념하고 무궁토록 계속되도록 이 사실을 기록해 놓기 위해 議政府 이하 諸司에서는 각각 병풍과 簇子를 만들었고 耆老所에서는 帖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⁸⁰⁾ 이 병풍은 諸司에서 만들었다는 기록을 보아 稷屏일 가능성이 크며, 족자는 당시 記錄畫나 行事圖가 거의 취했던 위에서 살펴본 契軸 형식의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 <進宴圖帖>이 바로 기로소에서 제작된 것이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 18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아직 기록화 병풍은 성행된 단계가 아니었고 다른 기록화와 마찬가지로 軸이나 畫帖의 형식을 빌어 제작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 같다. 또 행사가 치뤄지는 건물을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시점에서 행사장면을 부감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병풍인 경우에도 <進宴圖帖>(圖 45)처럼 여러 폭에 걸쳐 한 장면을 그리게 되는데 병풍 각 폭의 세로 길이가 비교적 짧아 옆으로 긴 직사각형의 화면을 이루게 되므로 마치 軸이나 畫帖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화면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76) 이 때의 의례로 『[文孝世子受冊時] 冊禮都監儀軌』가 있다.

77) 『明宗實錄』卷26 15年庚申 9月 壬午條(『朝鮮王朝實錄』卷20, 국사편찬위원회, p.568, 上右).

78) 『春官志』卷之二 宴享과 『肅宗實錄』卷48 36年庚寅 4月 庚申條(『朝鮮王朝實錄』卷40, p.351, 上右) 참조.

79) 『春官志』卷之二 宴享과 『肅宗實錄』卷44 32年丙戌 8月 壬子條(『朝鮮王朝實錄』卷40, p.225, 下右) 참조.

80) “...政府以下諸司各爲屏簇繪畫歌詠以微永久 耆老所爲帖子...” 崔錫鼎, <進宴圖帖> 後序.

그러나 1795년 이후의 것으로 남아있는 宮中行事圖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進宴圖, 進饌圖는 8곡에서 10곡에 이르는 병풍으로 꾸며지며 화면 구성면에서도 <봉수당진찬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園幸乙卯整理儀軌』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進爵·進宴·進饌儀軌에 미친 영향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⁸¹⁾ 숙종과 영조 때의 진연 의례는 모두 班次圖나 國式, 즉 行事圖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반해, 순조·헌종·고종 때의 의례는 모두 整理字로 인쇄되었으며 그 형식과 체제를 『園幸乙卯整理儀軌』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물론 建物圖, 進宴圖, 呈才圖, 儀仗, 器用, 服飾圖 등이 관화로 수록되어 있다(圖 49의 『乙丑 進饌儀軌』와 圖 51의 『戊申 進饌儀軌』참조)

이 乙丑年(1829) 進饌儀軌와 관련된 圖屏으로 보이는 <純祖乙丑進饌圖屏>(圖 50)은 모두 8곡으로 각각 3쪽에 걸쳐 明政殿進饌과 慈慶殿進饌 광경이 그려져 있다. 병풍의 규모가 커지면서 화면도 대형화되고 보다 높은 시점에서 행사장면을 조감하게 되므로 正殿 밖의 모습까지도 담기게 된다. 또 여러쪽에 걸쳐 한 장면을 그려내되 세로가 긴 화면은 병풍다운 맛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前代와 구별되는 특징은 <憲宗戊申 進饌圖屏>(圖 52)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다. 1848년(헌종 14)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에 걸쳐 大王妃(純元王后金氏, 1789~1857)의 寶齡 60세와 王大妃(神貞王后趙氏; 趙大妃, 1808~1890)의 보령 望五(41세)를 맞아 昌德宮의 內殿인 通明殿에서 거행된 진찬 장면을 그린 8곡 병풍인데 여기서는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건물의 투시가 한층 자연스러워졌고 원근법이 적용되어 보다 사실적으로 공간감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水原陵幸圖屏>은 그 이후의 進宴·進饌圖屏에 하나의 정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가지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前代의 기록을 上古하여 그 例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尙古精神에 힘입어 進宴·進饌圖屏의 제작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도 기여하였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각 쪽의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후대에 미친 영향과 의의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궁중행사도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들을 제외한 <水原陵幸圖屏>만의 특징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혹은 시각적으로 효과가 큰 화려한 광경을 선택하여 화면에 담았다. 行宮內에서 거행된 행사를 圖繪한 그림에는 행사의 무대가 되는 건물로 화면을 구획하고 그 안에 행사의 전모를 정면에서 반조감하는 정통적인 화면구성을 취하지만 행궁 밖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는 최대한도로 넓은 시야를 화면에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 변화있고 대담한 구도를

81) 현재 남아 있는 進宴관계 의례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1719년(숙종 45)의 것이 있고 그 이후로 영조 20년(1744), 41년(1765), 순조 27년(1827), 28년, 29년, 헌종 14년(1848), 고종 5년(1868), 14년(1877), 24년(1887), 29년(1892) 및 고종광무 5년(1901), 광무 6년, 광무 8년의 의례가 전하고 있다.

사용하면서 산수배경의 비중을 동등한 비율로 늘렸다. 특히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인물이 참가하는 장대한 광경을 긴 화면에 짜임새 있게 포착시켜 보는 이의 시선을 편안하게 행사의 중심으로 유도시키는 구성의 묘미는 어느 궁중행사도와도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난 것이다.

둘째, 인물의 위치, 반차, 복식, 기물의 배치 등을 정해진 법규대로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산수지형이나 부수적인 상황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옮겨 담았다. 따라서 紀念畫, 記錄畫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셋째, 인물과 말의 자세와 움직임이 다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몇 가지 형태의 인물이 판에 박힌 듯이 반복되는 다른 궁중행사도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또 각 인물은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되어 일률적인 느낌이 적다. 그리고 웅성거리며 무리지어 있거나 놀라움과 신기함에 가득 차 구경하는 군중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묘사는 당시 화단을 풍미하였던 풍속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얼굴이 작고 팔이 길어 균형잡힌 비례를 갖춘 인물의 허리가 꺾일 듯 뒤로 젖혀지는 자세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이다.

네째, 가장 시대적인 변화를 크게 반영하는 遮日의 묘사는 18세기중반 경에 확립된 갈매기가 나는 형태의 기본형에 작은 주름을 적극적으로 가해 세부묘사를 하는 단계에 이른다.

다섯째, 명암법, 원근법, 투시도법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화기법이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시점이 혼용되며 화면 구석구석까지 통일된 하나의 시각이 적용되지 못하는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여섯째, 『園幸乙卯整理儀軌』가 그 이후에 제작되는 진작·진연·진찬 의궤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하여 19세기 이후 제작되는 진연·진찬도병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9세기의 진연도·진찬도를 보면 장황형식과 규모, 화면구성, 내용에만 영향을 받았을 뿐 역시 화가의 기량에 따른 표현수준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이상으로 정리해 본 바와 같이 〈水原陵幸圖屏〉은 그 이전의 궁중행사도는 물론이고 이후에 제작되는 그림들과도 구별되는 우수한 특징들을 고루 갖춘 작품이다. 이것은 金得臣, 李寅文, 張漢宗 등 당시의 일류 화원이 동원된 기록이 뒷받침해 준다. 이들 중 최득현과 김득신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인물부분을 담당했으며 이인문은 의궤에 가장 나중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보아서도 비중이 작은 산수부분을 맡아 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지 그들의 다른 그림들과 비교하여 증명해 내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圖屏의 제작시기와 각 소장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도병의 완성시기는 그림의 내용과 화성성곽의 축조일자를 통해 행사 이듬해인 1796년 1월 이후 8월 이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대부분의 궁중 행사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합 세 질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전하는 것 중에서 창덕궁소장본은 전주박물관본과 동일본에 의해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단계 진전된 양상의 명암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고 설채에서도 차이가 나며 산수배경의 묘사에서도 시대가 많이 떨어지는 모사본 특유의 특징들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창덕궁소장의 〈수원능행도병〉은 19세기 전반경에 전주박물관본을 모본으로 하여 새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호암미술관 소장의 〈환어행렬도〉 한 폭은 그 수준이 전주박물관본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치밀하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原作다운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

이 문제는 병풍 제작에 있어서 화원들의 역할분담에 관한 문제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각 폭의 밑그림을 그릴 때 각각 산수·인물·건물 등 자기의 전공분야만을 맡아 8폭을 두루 그렸는지, 아니면 한 폭 씩을 맡아 완성했는지의 문제이다. 또 여러질을 제작할 때에도 동일한 밑그림 위에 한 질을 놓고 몇 사람이 조를 짜서 채색 했는지 아니면 여러 질을 한꺼번에 놓고 산수·인물·건물 등 자기의 전공분야만을 맡아 그렸는지가 의문이다. 이 화원간의 역할분담 문제가 선결된다면 호암미술관본과 전주박물관본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할 수 밖에 없겠다. 또 동경예술대학소장의 〈득중정어사도〉와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거래된 미공개작까지를 모두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의 전후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궁중의 행사가 끝난 다음 공식적으로 기념화를 그려 진상했던 것이 관례화되기까지의 배경과 그 구조적 문제도 밝혀 덧붙인다면 더욱 명료하게 그 윤곽이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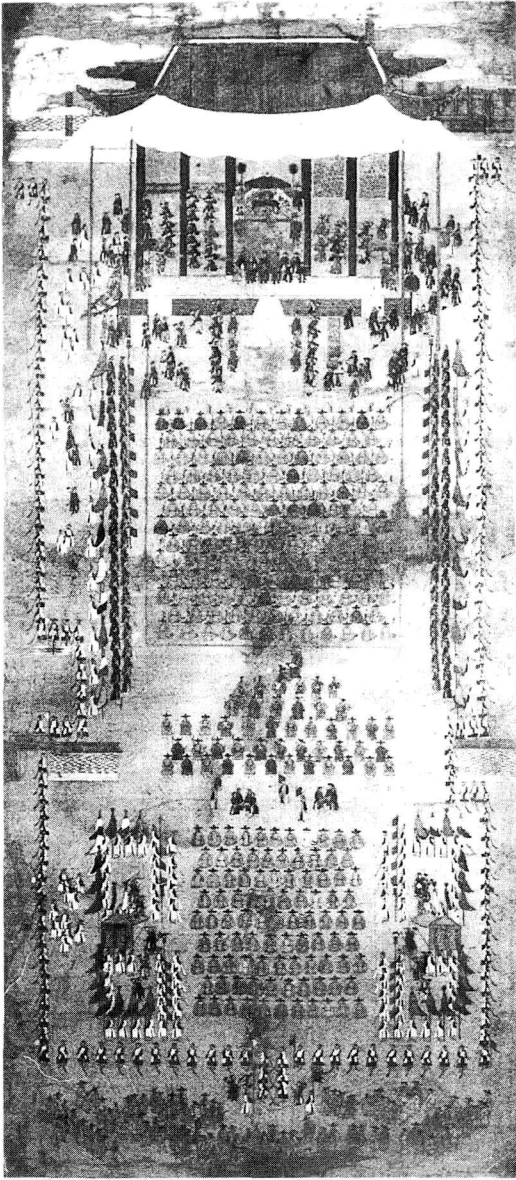


圖 2. 〈洛南軒養老宴圖〉(제7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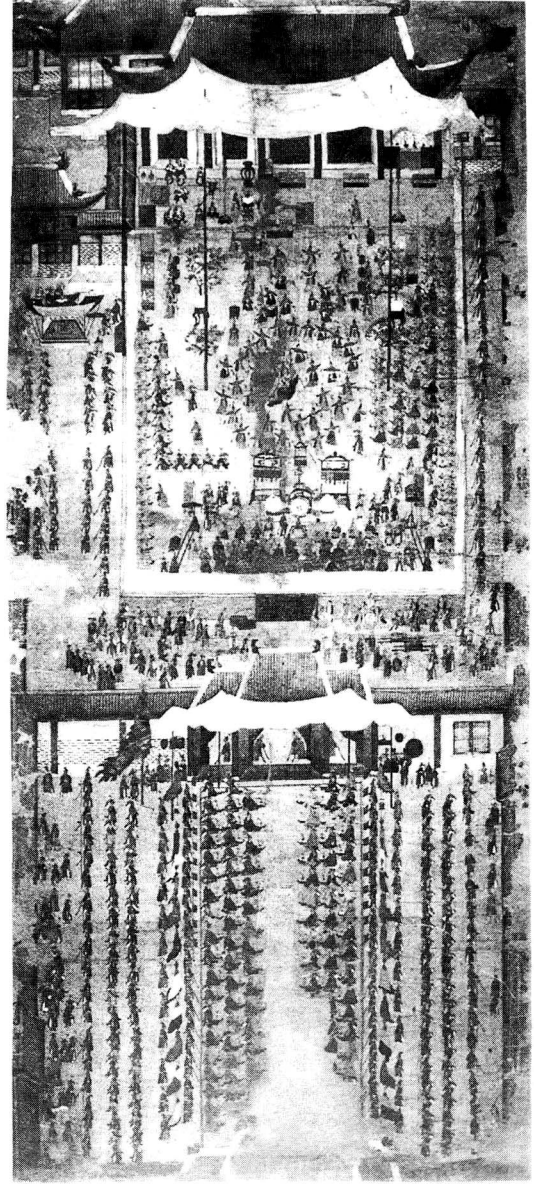


圖 1. 〈奉壽堂進饌圖〉(제6폭)

圖 1 ~ 8. 崔得賢·金得臣·李寅文 等, 〈水原陵幸圖屏〉
1795년경, 건본채색, 각폭 151.5×66.4cm,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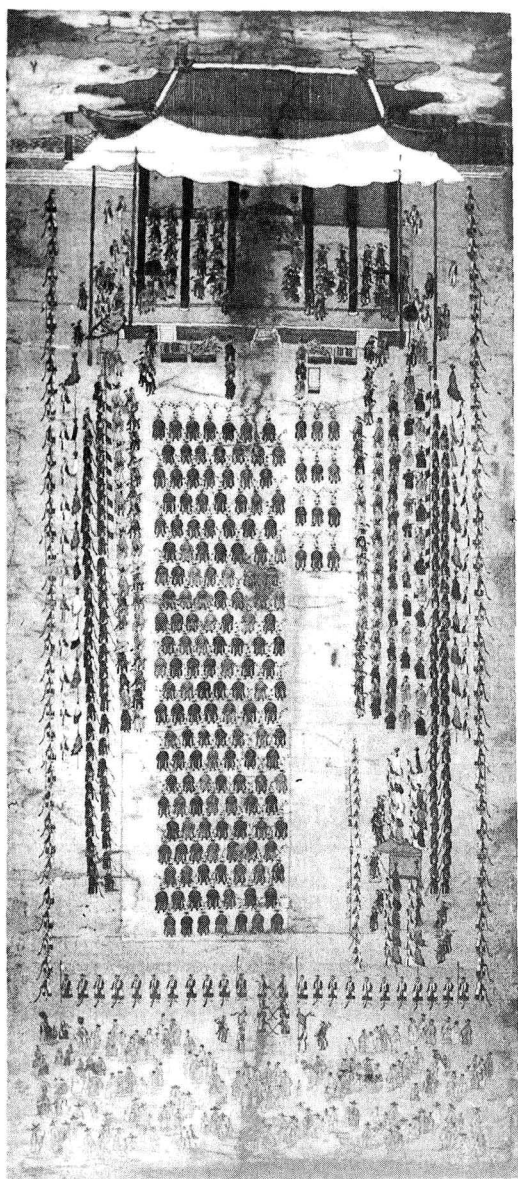


圖 4. 〈洛南軒放榜圖〉(제4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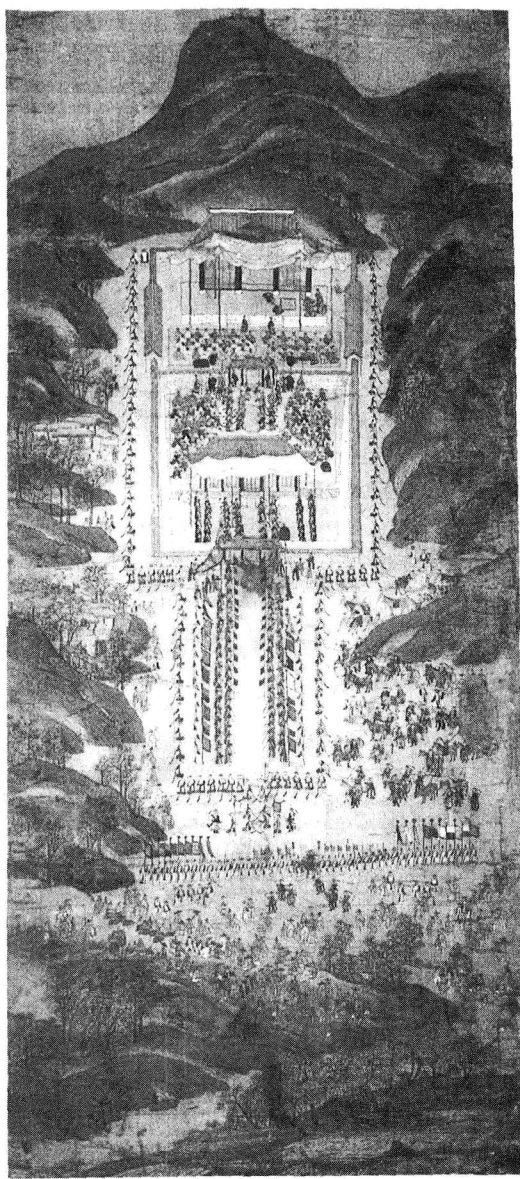


圖 3. 〈華城聖廟展拜圖〉(제3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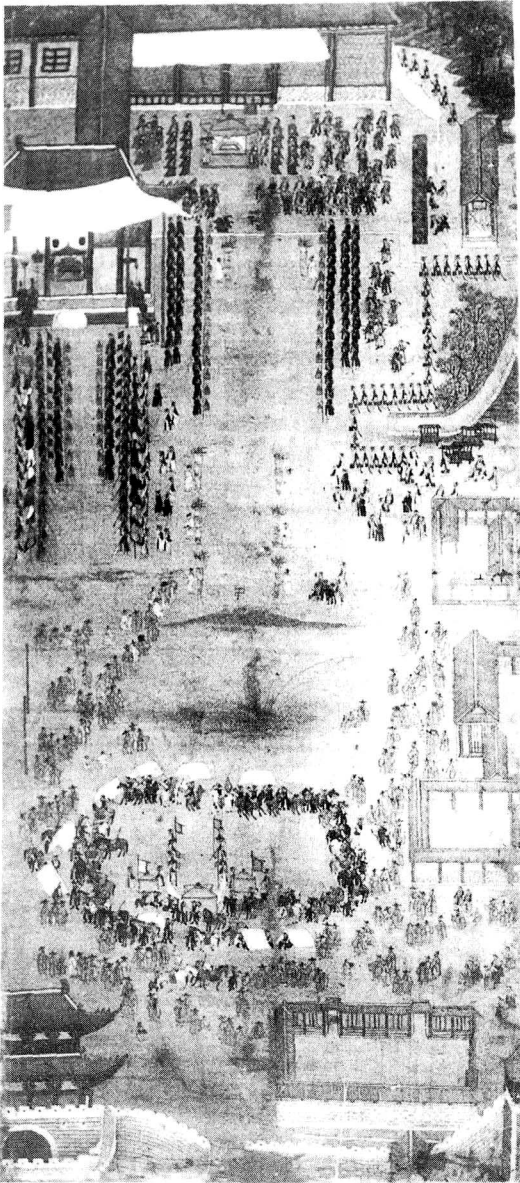


圖 6. 〈得中亭御射圖〉(제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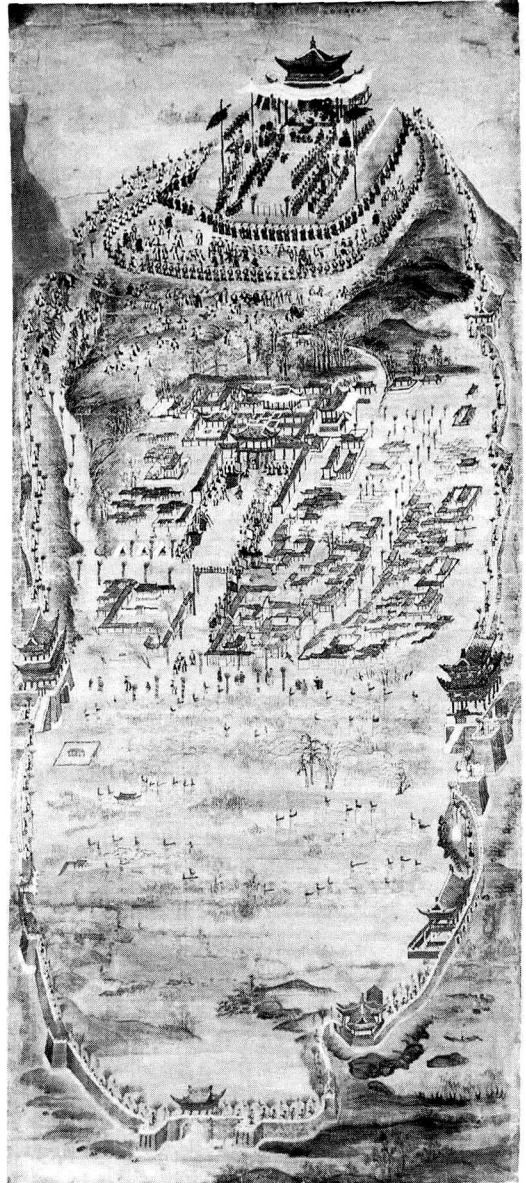


圖 5. 〈西將臺夜操圖〉(제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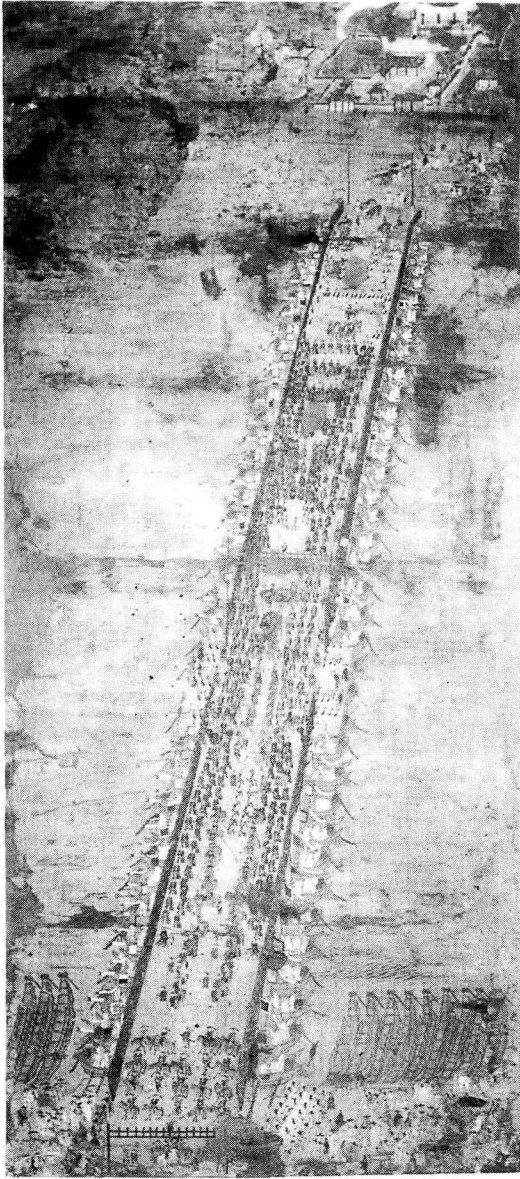


圖 8. 〈漢江舟橋還御圖〉(제1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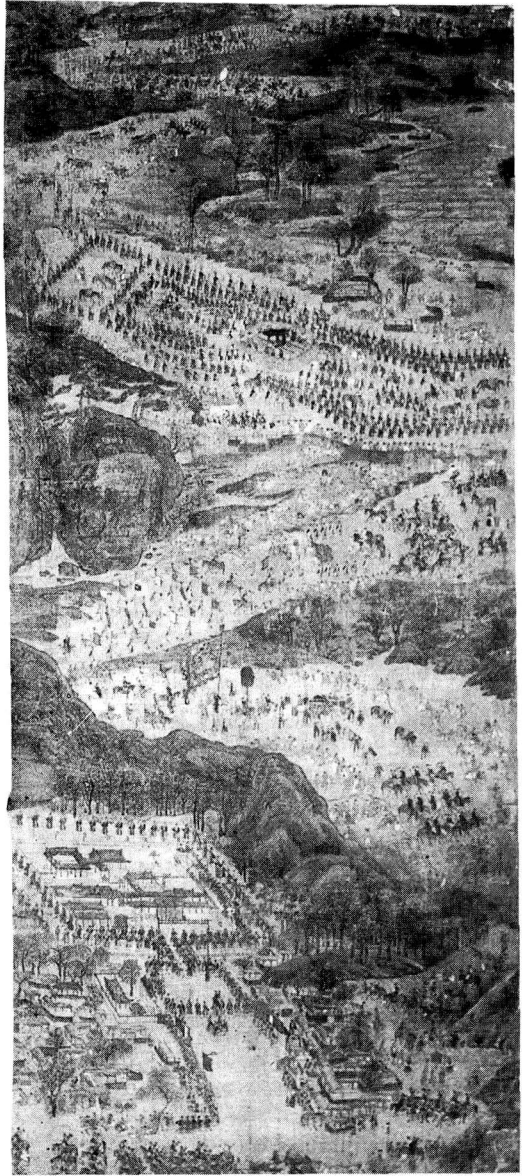


圖 7. 〈還御行列圖〉(제2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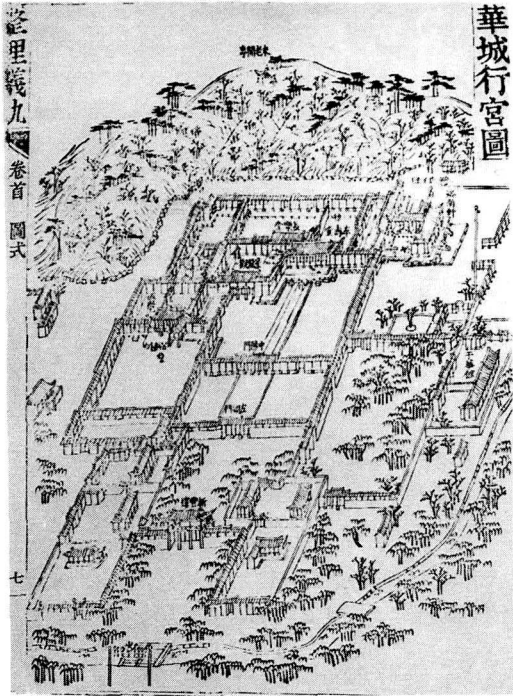


圖 9. 〈華城行宮圖〉,『園行乙卯整理儀軌』卷首, 圖式, 1797 간행, 奎章閣.



圖 11. 〈舞鼓〉,『園辛乙卯整理儀軌』, 圖式, 1797 간행,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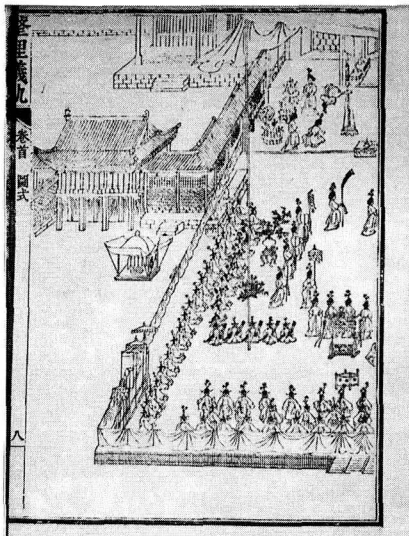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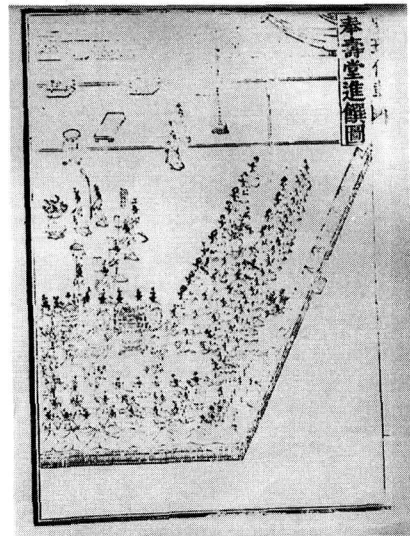


圖 10. 〈奉壽堂進饌圖〉,『園辛乙卯整理儀軌』卷首, 圖式, 1797 간행,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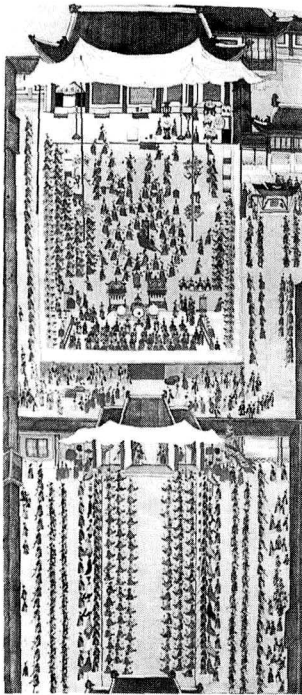


圖 12. 〈奉壽堂進饌圖〉, 〈水原陵辛圖屏〉中 제1폭, 19세기초, 건본채색, 149.8×64.5cm, 昌德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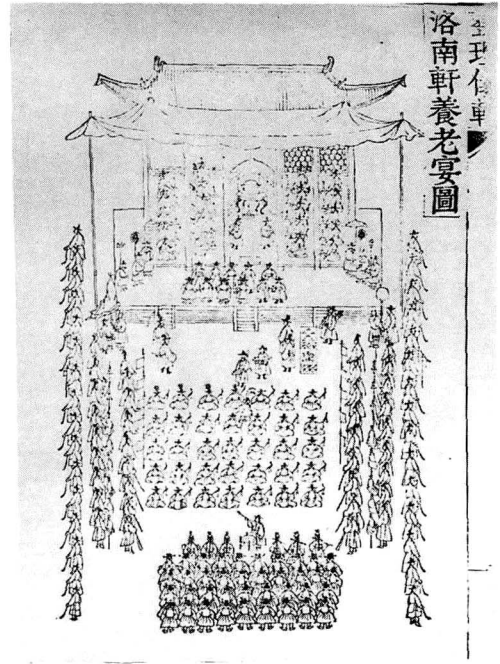


圖 13. 〈洛南軒養老宴圖〉, 『園幸乙卯整理儀軌』.



圖 14. 嚴致郁 등, 〈文宣王廟圖〉, 『華城城役儀軌』 卷首, 圖說, 1801년간행,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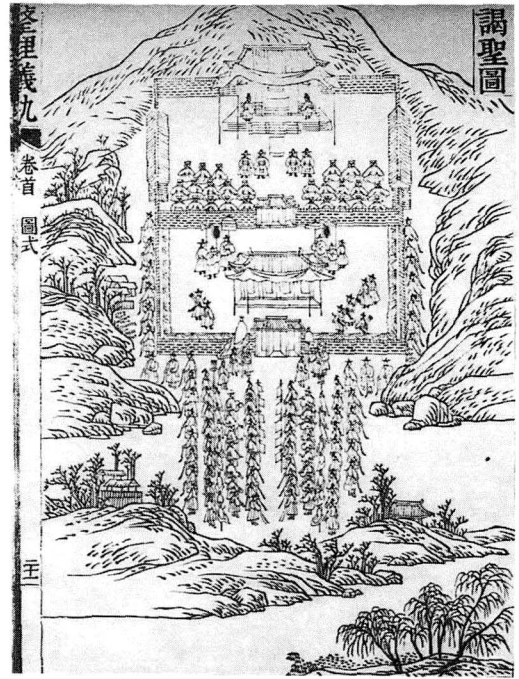


圖 15. 〈謁聖圖〉, 『園幸乙卯整理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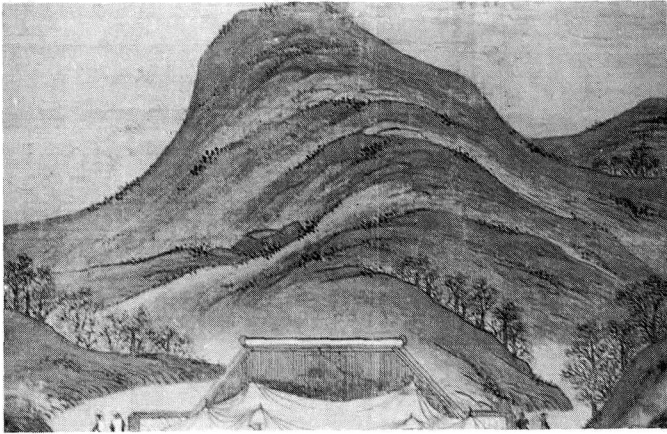


圖 16. 圖 3의 부분(화면 상단의 主山),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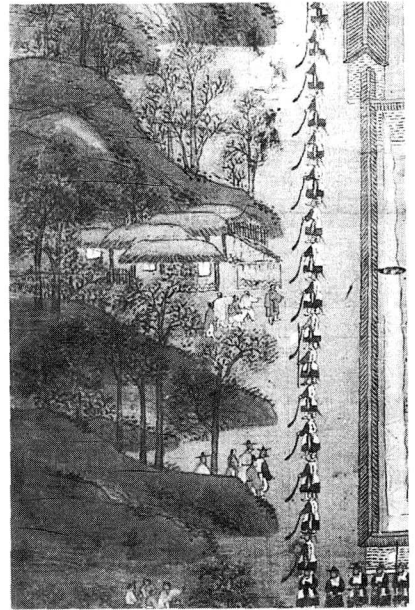


圖 17. 圖 3의 부분(聖廟 좌측의 산수 부분),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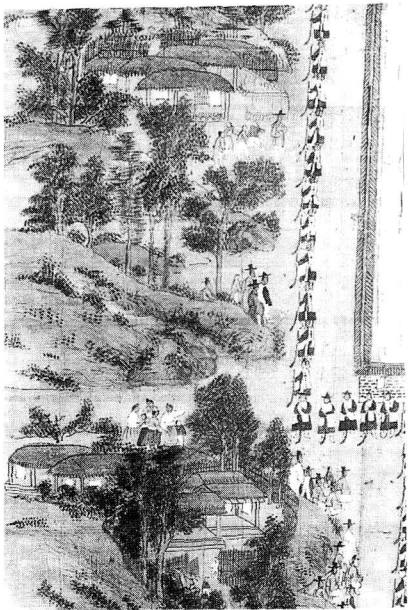


圖 18. <華城聖廟展拜圖>의 부분, 昌德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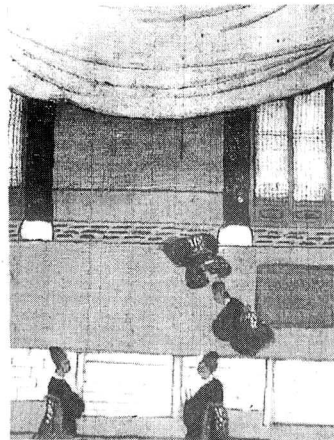


圖 19. <華城聖廟展拜圖>의 부분(大成殿 內的 모습), 昌德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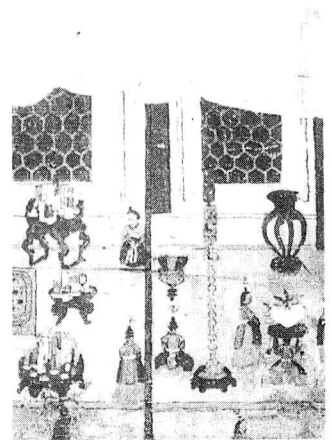


圖 20. <奉壽堂進饌圖>의 부분(殿內的 正祖位 부분),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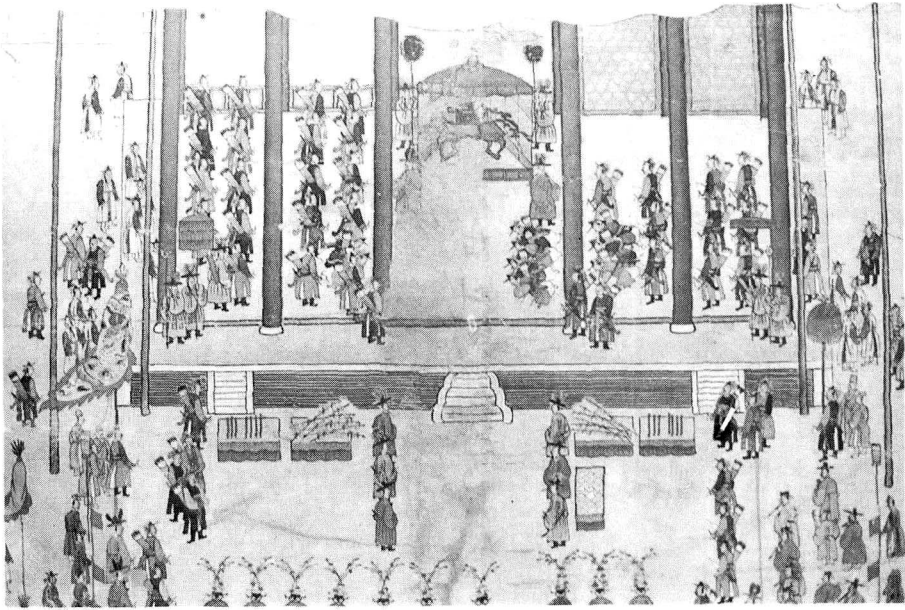


圖 21. 〈洛南軒放榜圖〉의 부분,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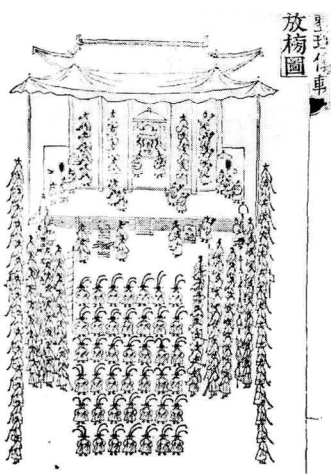


圖 22. 〈放榜圖〉, 『園幸乙卯整理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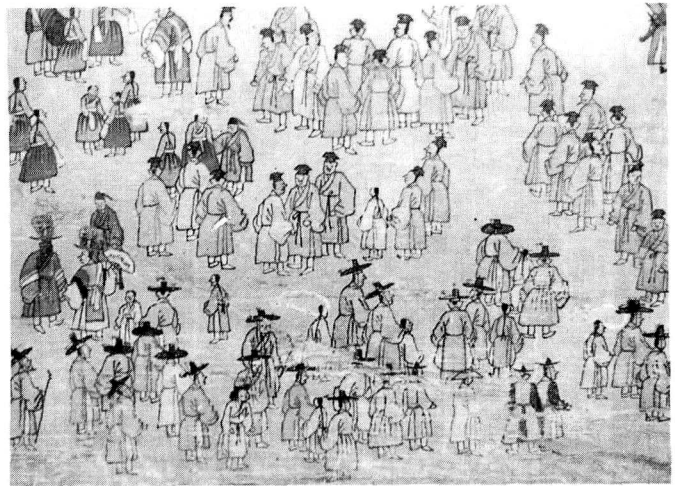


圖 23. 〈洛南軒放榜圖〉의 부분(화면하단의 구경꾼들),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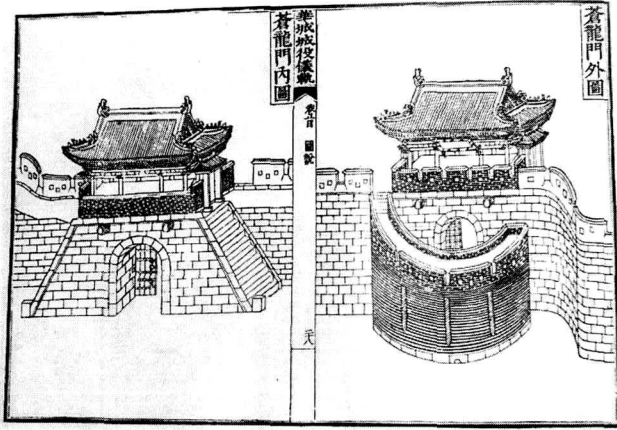


圖 24. 〈倉龍門圖〉, 『華城城役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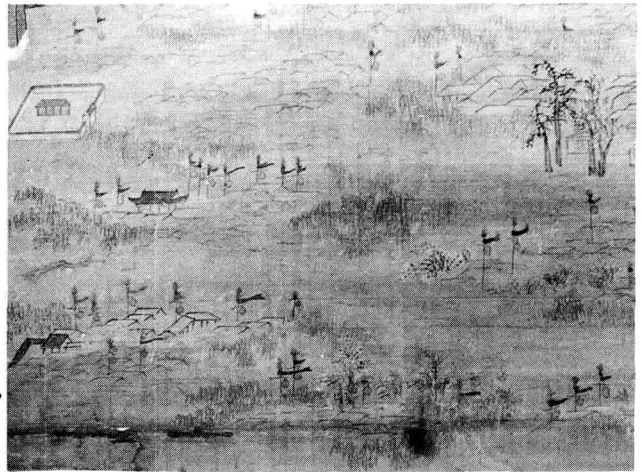


圖 25. 〈西將臺夜操圖〉의 세부
(城內的 시가지와 人家의 모습),
국립전주박물관.



圖 26. 〈西將臺夜操圖〉의 부분, 昌德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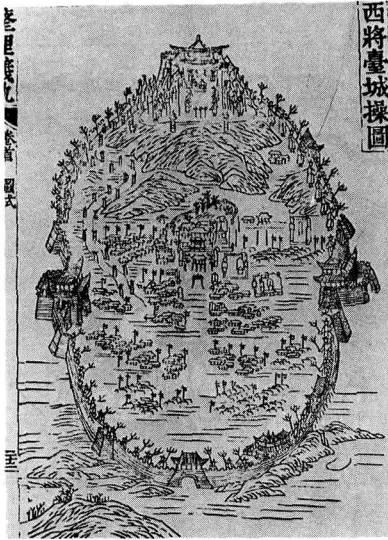


圖 27. <西將臺城操圖>, 『園辛乙卯整理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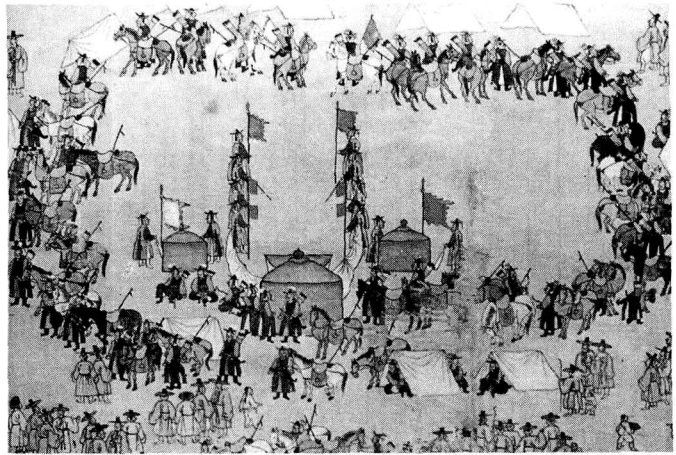


圖 28. <得中亭御射圖>의 부분,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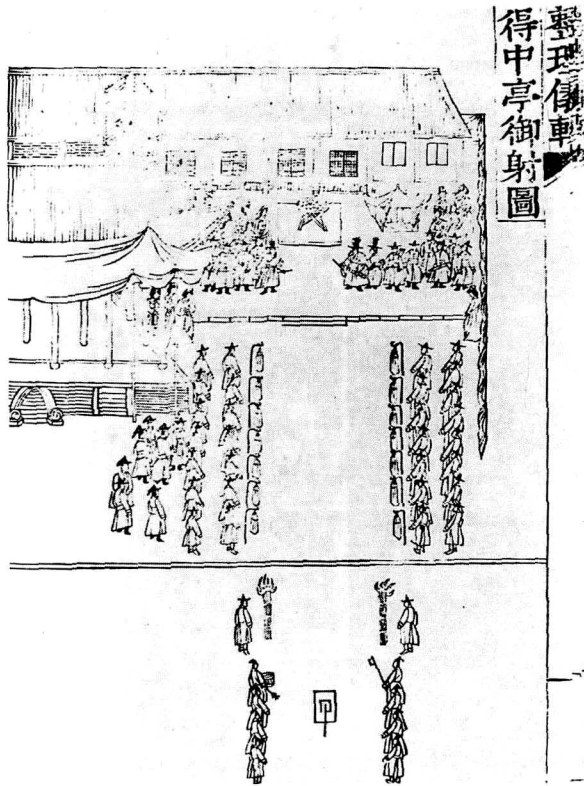


圖 29. <得中亭御射圖>, 『園辛乙卯整理儀軌』



圖 30. 洛南軒의 계단석, 水原市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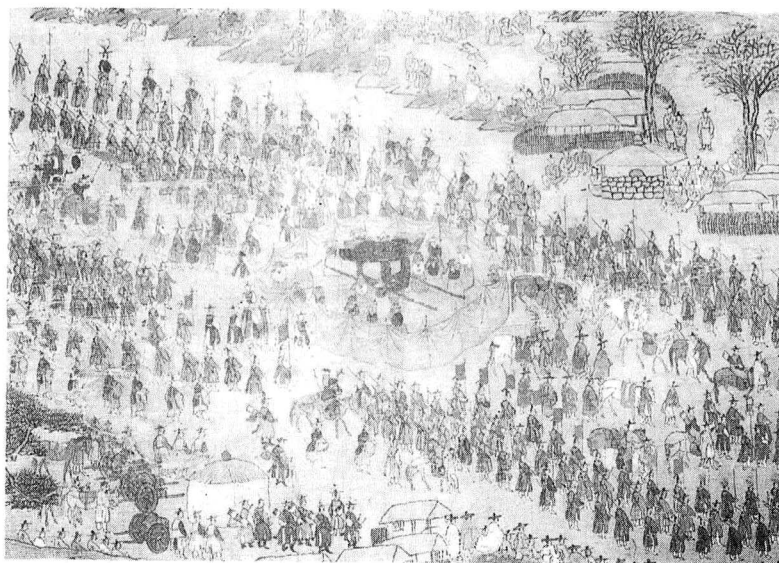


圖 31. <還御行列圖>의 부분(惠慶宮 駕轎와 水刺架子 부분),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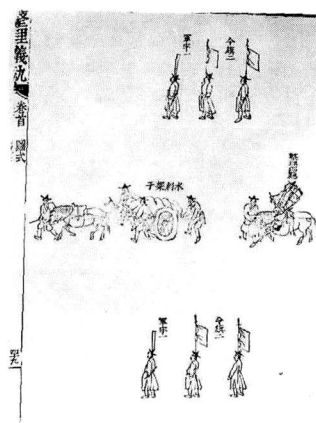


圖 32. <行列班次圖>의 부분, 『園幸乙卯整理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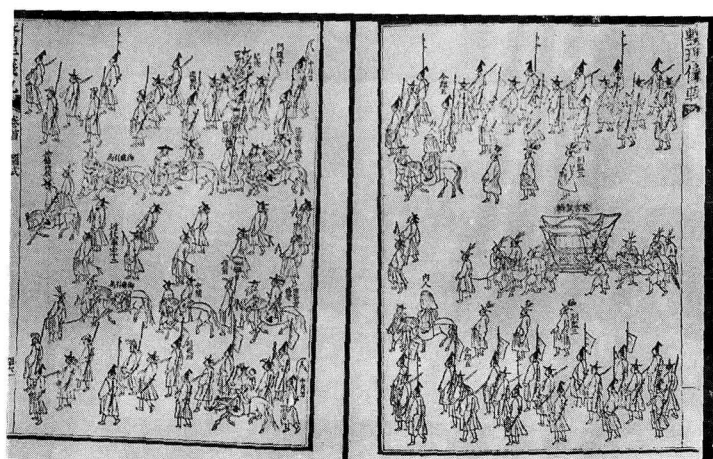


圖 33. <行列班次圖>의 부분, 『園幸乙卯整理儀軌』.



圖 35. <還御行列圖>의 부분, 昌德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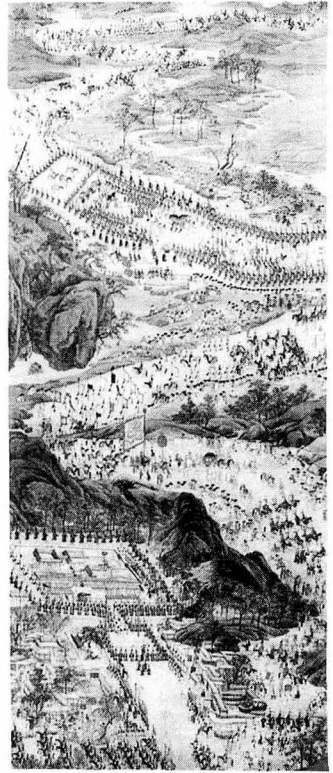


圖 36. <還御行列圖>, 건본채색, 156.5×65cm, 湖岩美術館.



圖 34. <還御行列圖>의 세부(화면 좌측의 바위 부분),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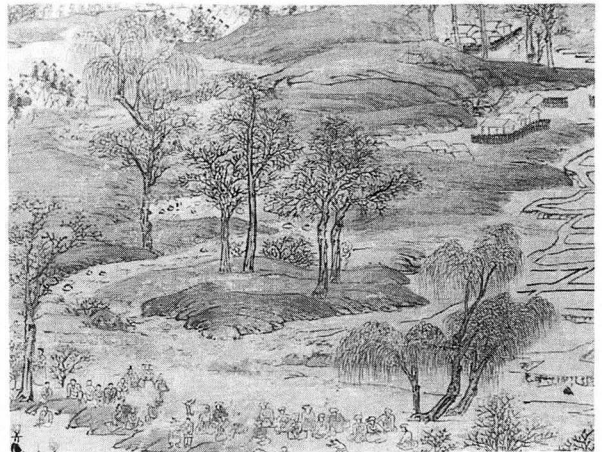


圖 37. <還御行列圖>의 세부, 국립전주박물관.



圖 38. <還御行列圖>의 세부, 昌德宮.



圖 39. <還御行列圖>의 세부, 호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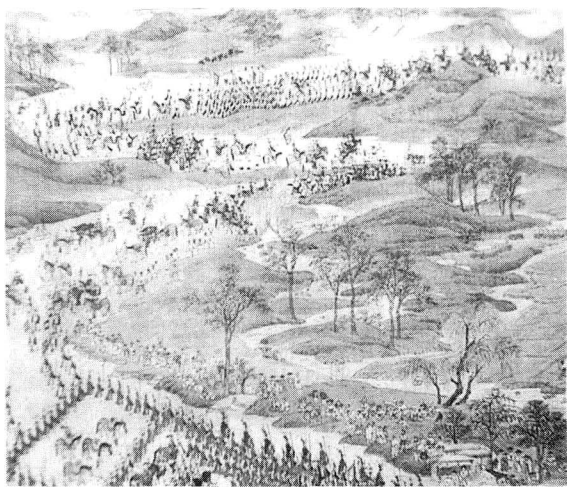


圖 40. <還御行列圖>의 세부, 호암미술관.



圖 41. <漢江舟橋還御圖>의 세부, 昌德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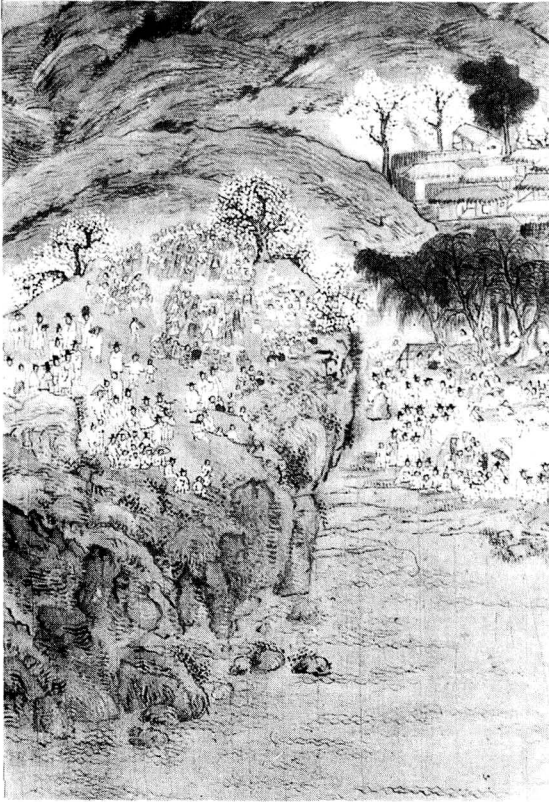


圖 42. <漢江舟橋還御圖>의 세부, 昌德宮.



圖 44. <景宗親政稷屏>, 1721년경, 건본채색, 142×58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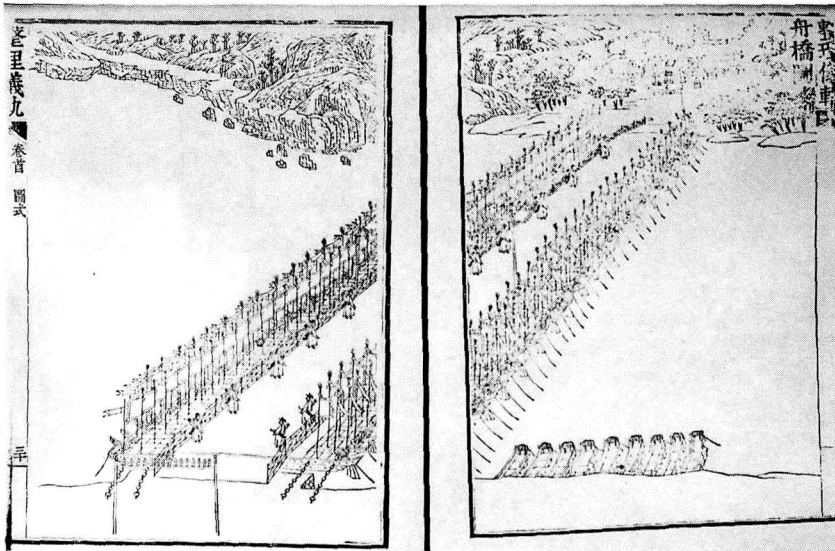


圖 43. <舟橋圖>, 『園幸乙卯整理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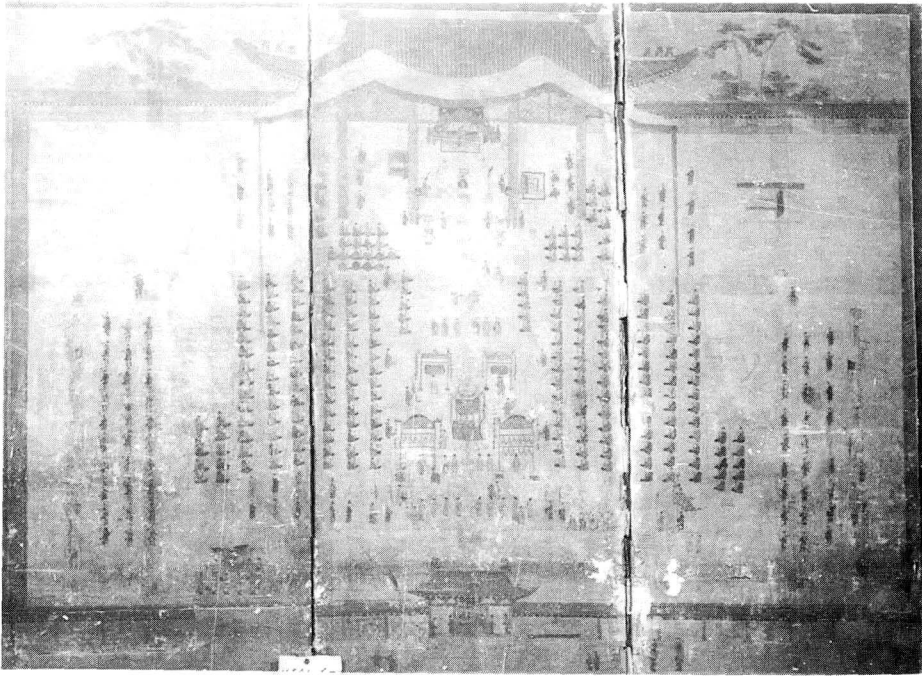


圖 45. 〈進宴圖屏〉, 6曲中 세 폭, 1740년경, 건본채색, 각 폭 121×53cm(그림크기),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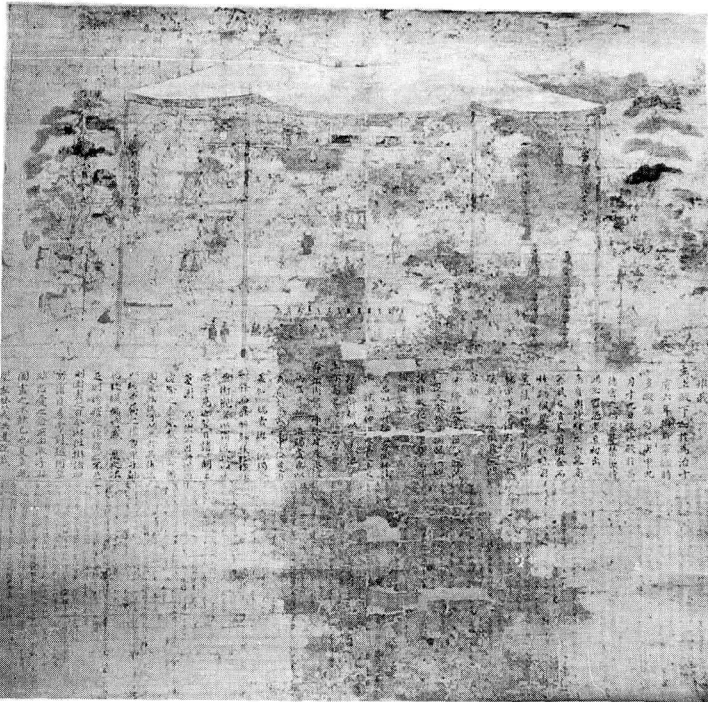


圖 46. 〈瑞葱臺親臨賜宴圖〉, 1560년경, 건본채색, 124.2×122.7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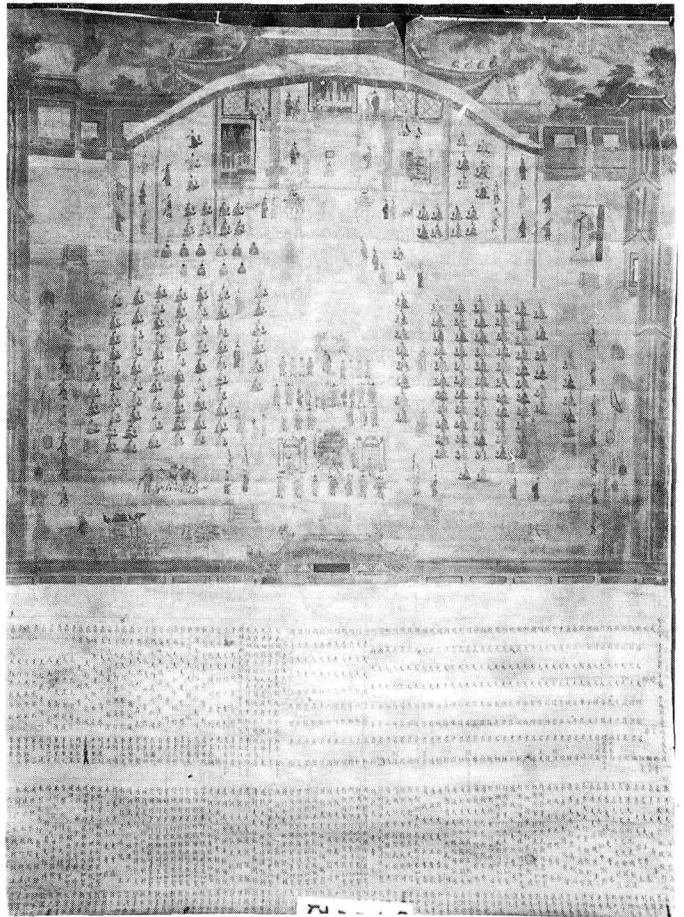


圖 47. 〈崇政殿進宴圖〉, 1710년경, 지본채색, 162.1×123.6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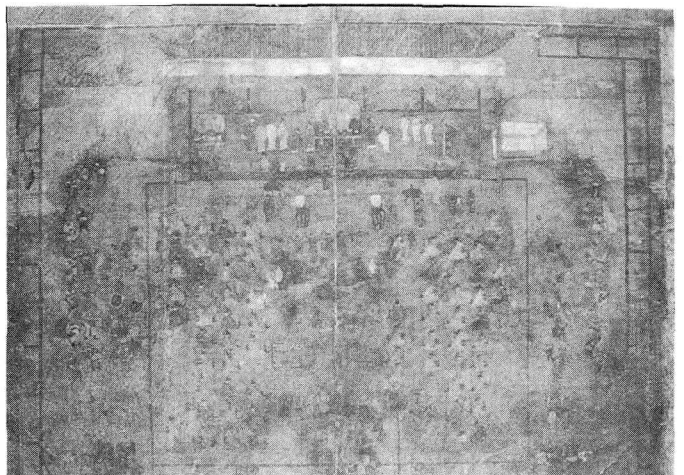


圖 48. 〈進宴圖帖〉, 1706년경, 건본채색,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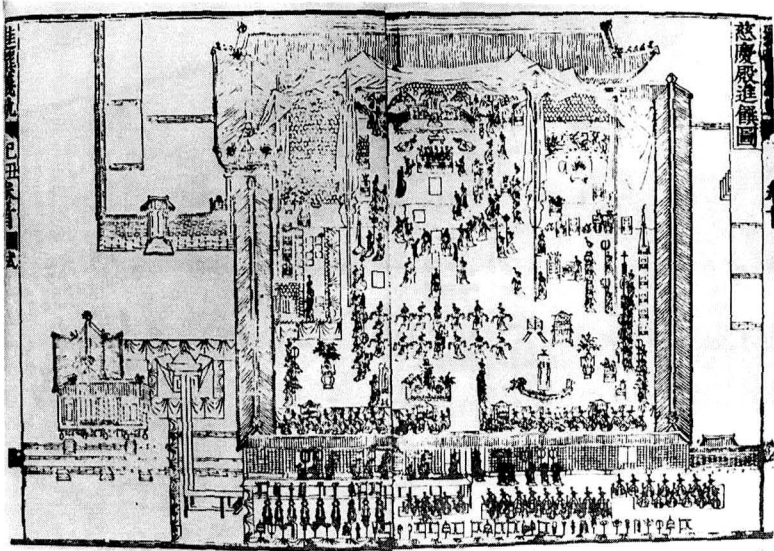


圖 49. 〈慈慶殿進饌圖〉, 『乙丑進饌儀軌』卷首, 1829년,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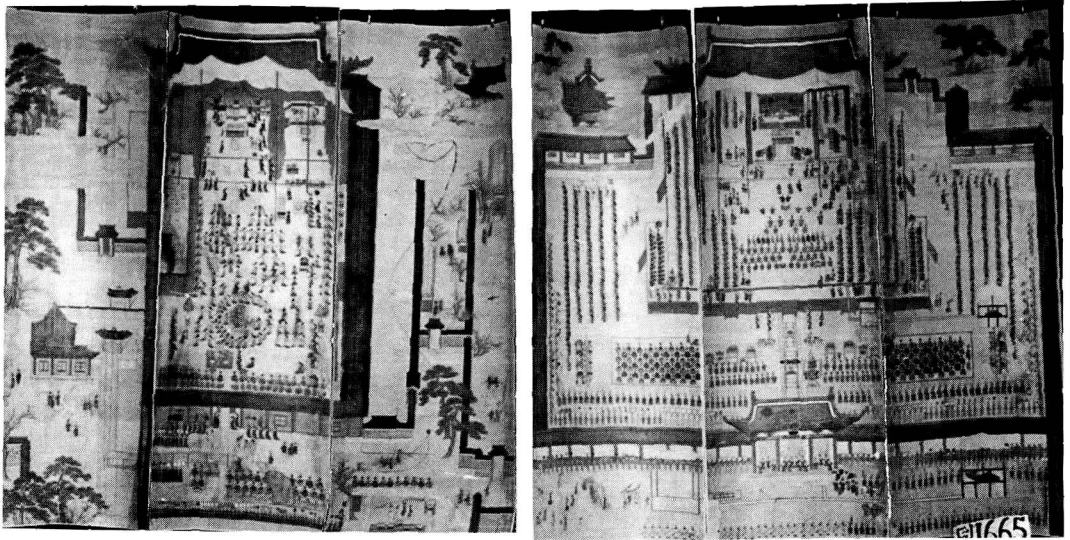


圖 50. 李壽民 等, 〈純祖乙丑進饌圖屏〉, 1829년경, 건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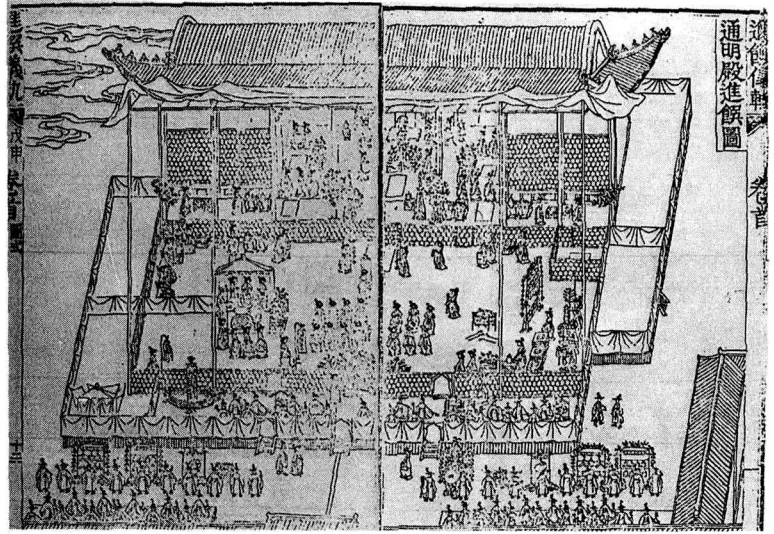


圖 51. <通明殿進饌圖>, 『戊申進饌儀軌』 卷首, 1848년,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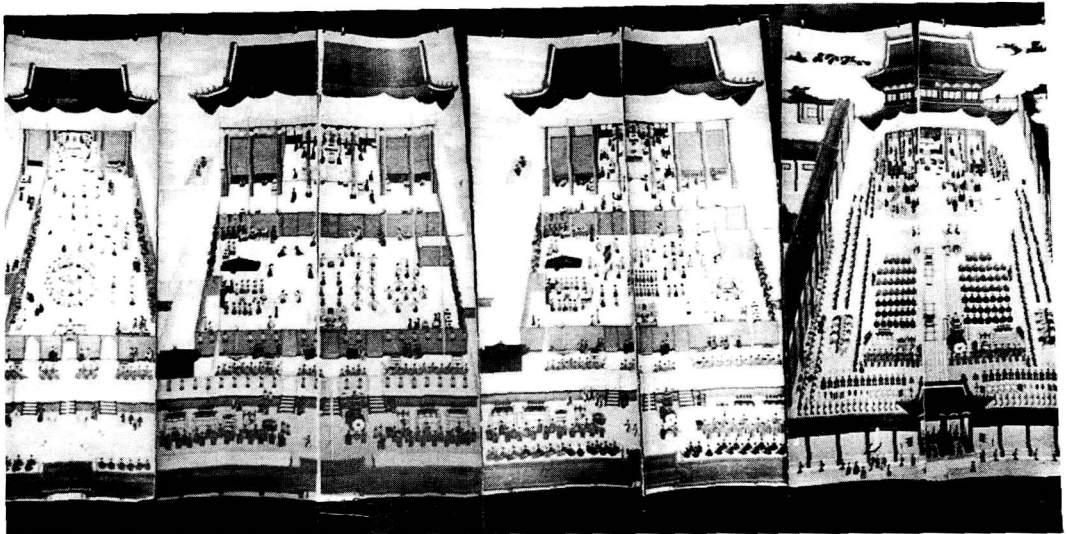


圖 52. <憲宗戊申 進饌圖屏>, 1848년경, 건본채색, 각폭 136.1×47.6cm, 국립중앙박물관.

[ABSTRACT]

A Study of Screen Painting, *Suwon Nūnghaeng-do Pyōng*

Park Jōng-hye

The *Suwon Nūnghaeng-do Pyōng*(水原陵幸圖屏), an eight-fold screen painting, depicts the royal ceremonies on the occasion of King Chōngjo's(reigned 1777-1800) visit to the Hyōllyung-won(顯隆園) Tomb park near Hwasōng(華城), the newly built tomb of his late father. The event took place between the 9th to the 16th of February, 1795, and the King was accompanied by his mother.

To commemorate this visit, King Chōngjo gave a grand banquet (chinch'an:進饌) for his mother who was to celebrate her 60th birthday later in the year. He also commissioned the publication of the documentary records, entitled *Wonhaeng Ŭlmyo Chōngni Ŭigie*(『園幸乙卯整理儀軌』). This book contains not only detailed description of the whole process of the royal ceremonies performed at Hyōllyung-won in 1795 but also a series of wood block prints of the scenes of the ceremonies similar to those depicted in the screen. Therefore, this publication serves as a primary documentary source in analyzing the contents of *Suwon Nūnghaeng-do Pyōng*.

There exists two versions of this screen, one in the Chōnju National Museum, and the other in the Ch'angdōk Palace.

This paper concentrates on explaining the contents of the screen and establishing an art historical position of each screen described as in the *Wonhaeng Ŭlmyo Chōngni Ŭigie* by comparing the two versions with the wood block illustrations in the *Wonhaeng Ŭlmyo Chōngni Ŭigie*.

In conclusion the following two points can be made. First, *Suwon Nūnghaeng-do Pyōng* has more distinctive features than any other paintings showing the royal ceremonies. Second, this screen had an important effect upon the content, style, scale, and composition of the screen paintings depicting royal banquets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